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21
전도서

HB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제 12 장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13제〉...331

전도서 특별 자료 차례

전도서 서론 〈화보 자료〉	18세기 성경의 전도서 속표지.....	246
전도서 서론 〈연구 자료〉	전도서에 나타난 인생관.....	247
제 1 장 〈화보 자료〉	말을 몰며 밭을 가는 농부.....	253
제 1 장 〈연구 자료〉	성경에 나타난 생명관(生命觀).....	254
제 2 장 〈화보 자료〉	공주.....	263
제 2 장 〈연구 자료〉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264
제 3 장 〈화보 자료〉	꿈.....	271
제 3 장 〈연구 자료〉	노예에 대한 성경적 입장.....	272
제 4 장 〈화보 자료〉	대화를 나누는 두 친구.....	278
제 4 장 〈연구 자료〉	하나님과 하느님의 명칭에 대한 논의.....	279
제 5 장 〈화보 자료〉	순례자의 평화로운 잠.....	285

제 5 장	〈연구 자료〉	하나님의 고유 명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286
제 6 장	〈본장의 요절〉	……………	290
제 6 장	〈연구 자료〉	낙태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 ……	291
제 7 장	〈화보 자료〉	금화(金貨) ……	300
제 7 장	〈연구 자료〉	섭리(攝理)에 대하여 ……	301
제 8 장	〈본장의 요절〉	……………	308
제 8 장	〈연구 자료〉	한글 개역 성경에 사용된 각종 부호들 ……	309
제 9 장	〈화보 자료〉	무덤 ……	316
제 9 장	〈연구 자료〉	우리말 관주 성경(貫珠聖經)과 관주 ……	317
제 10 장	〈화보 자료〉	흰머리 독수리 ……	324
제 10 장	〈연구 자료〉	우리말 성경 본문에 첨가된 작은 글자들 ……	325
제 11 장	〈화보 자료〉	식물(食物)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 ……	330
제 12 장	〈화보 자료〉	음악하는 여자들 ……	336
제 12 장	〈연구 자료〉	외경(外經)에 대하여 ……	337

전도서 서론

1. ㉠ ‘전도서’ 라는 명칭은 어디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은 무엇인가?

- ㉡ (1)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레트>인데 이 말은 1:2, 12; 12:8에 나오는 전도자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 (2) 여기서 <코헬레트>라는 말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말하거나 전달하는 사람’, ‘성직자’ 또는 ‘설교자’, ‘전파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3) 또한 70인역(LXX)과 벌게이트(Vulgate) 역의 ‘전도서’ 부분에 대한 제목은 <에클레시아스테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설교자’, ‘전파자’를 뜻하며 ‘집회’(assembly)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 (4) 개역 성경의 ‘전도서’라는 말은 위의 <코헬레트>와 <에클레시아스테스>를 넓은 의미에서 의역(意譯)한 것이다.

2. ㉠ 본서(本書)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의 저자에 대한 내증(內證)은 1:1에서 보여 주듯이 저자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 직함만을 제시하고 있다.
- (2) 즉 본서의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만 소개하고 있다.
- (3) 그런데 다윗의 아들로서 위의 직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는 솔로몬밖에 없으며 유대인의 전승(傳承)도 본서의 솔로몬 저작설을 지지하고 있다.
- (4) 그러나 종교 개혁자 루터(M. Luther) 이후 많은 사람들은 (Hengstenburg, Delitzsch, Wright, Young) 솔로몬을 본서의 저자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
- (5) 대신에 그들은 본서가 바벨론 포수(捕囚) 이후에 어떤 익명의 저자가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하여 본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 (6) 그들은 주로 언어학적인 자료들을 증거로 하여 위의 견해를 주장하였으나 그들의 언어학적인 접근은 본서의 후기 연대설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 (7) 그러므로 본서의 내증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견해를 토대로 하여 본서의 저자를 이스라엘의 제 3대 왕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 학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학설로서 그 연대를 확정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B. C. 935년경과 B. C. 400년에서 B. C. 150년 사이 그리고 B. C. 40년경으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 (2) 그러나 ㉠ 2에서 언급되었듯이 본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적어도 B. C. 400년에서 B. C. 150년 사이와 B. C. 40년경에 본서가 기록되었다는 주장은 억측이 아닐 수 없다.
- (3) 더욱이 1947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한 쿨란 사본의 전도서 단편들은 B. C. 150년 이후의 연대를 부정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를 솔로몬의 시대인 B. C. 935년경으로 봄이 가장 타당하다.

4. ㉠ 많은 보수주의 학자와 비평 학자들이 본서에 대한 솔로몬의 저작설을 부인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 ㉡ (1) 첫째로 본서 전편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으며 더욱이 ‘전파자’, 즉 ‘설교자’라는 말도 위대한 왕 솔로몬에다 연결시키기에는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 (2) 둘째로 1:12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란 말이 과거형 동사로 표현된 점이다.
- (3) 이 동사를 현재 완료로 취할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있다는 표현을 하려면 이 과거 동사를 생략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그들은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때까지 왕으로 있었으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무명의 저자가 왕을 인격화시켜 표현하는 어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였다.
- (5) 세째로 1:16;2:7에서 말하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라는 말은 솔로몬의 말이라기 보다는 후시대 사람의 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6)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본서의 전반적인 표현이 솔로몬 시대보다 늦은 시대의 기록임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였다.
- (7) 왕상 4:25에는 솔로몬 시대 당시 팔레스틴이 부유하고 번창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서에서는 그 시대상이 불행과 독재 그리고 억압적인 것으로 표현되었다고 주장했다(4:1-3;5:8;7:10;8:9;10:6,7).
- (8) 그러나 이 모든 주장들은 본서의 솔로몬 저작설을 부인하기에 미흡하며 본서 1:1의 말 씀으로 보아 본서의 저자가 솔로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5.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저자는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현세의 영광이나 축복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될 때는 절망과 공허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2) 또한 하나님의 영원성과 공평성을 제시함으로써 인간들이 그 소망을 이 세상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것을 권고하였다.
- (3) 즉 저자는 인생의 최고 목적과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결국 신앙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단지 그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을 뿐이다.
- (4) 본서의 기록 목적을 본서에서 찾는다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12:13, 14)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 (5)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높은 목적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 진리이다. 이것은 곧 절대 완전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추구해야 할 목적이다.

6. ㉠ 본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의 메시지는 세 가지 제안의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 (2) 그 첫번째는 아무 목적 없이 되풀이되며(1:4) 이해할 수 없는 모순같이 보이는 인생을 볼 때(4:1;7:15;8:8) 그 사건들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을 짓는다.
- (3) 또한 두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주 희망찬 삶을 사는 것이 좋다(3:12, 13;5:18, 19;8:15;9:7-9)고 권면하고 있다.
- (4)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을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16, 17;12:14).
- (5) 이 책에서 자주 인용되는 귀절은 1:2;3:1;4:12;11:1;12:1, 13이다.

7. ㉠ 본서의 주요 사상에 대해서 약술하라.

- ㉠ (1) 본서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히브리인들이 본서의 해석과 정경성(canonicity)의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인 기록이 있다.

- (2) 여하튼 본서에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적극적인 사상의 일면이 있다. 본서 내용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의의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엿보인다.
- (3) 특히 제 12 장에는 염세주의적 배경과 상반된 메시지가 명백하게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청년 시절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
- (4) 이것은 분명히 저자가 대부분의 인간들에게서 발견한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5) 사실 지적 활동이 활발한 젊은 시절에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조물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생명이 창조자의 귀한 선물이라는 인식(認識)은 인생의 청지기직에 관한 사상을 불러 일으킨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능과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종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 (7) 인본주의(人本主義)가 횡행하는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근본 진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때에 본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머물러야 할 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8. **㉠** 본서는 언제 정경(正經)으로 확정되었는가?

- ㉠** (1) 본서는 정경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많은 도전을 받은 책이다. 특히 율법 연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힐렐(Hillel)과 샴마이(Shammai) 학파 간에 본서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 (2) 더우기 험펠(Hempel)이라는 유대 율법 학자는 본서를 가리켜 '전도서는 B. C. 3세기의 가장 이단적인 책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 (3) 이러한 우여 곡절(迂餘曲折) 끝에 본서는 A. D. 90년 얄니아(Jamnia)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되었다.
- (4) 탈무드(Talmud)에 보면 본서가 정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 교훈으로 시작했고 종교적 교훈으로 끝마친 까닭이라고 했다.
- (5) 사실 본서의 내용이 비록 인생의 무상(無常)함과 허무로 가득 차 있으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명령 준행으로 귀결되고 있다.

9. **㉠** 본서의 기본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서의 기본 주제는 이 땅에 그 야망과 욕구를 둔 인생은 궁극적으로 허무(무상)하다는 것이다.
- (2) 즉 인간 자신의 시계(視界)를 초월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목적은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 다 무의미함과 좌절의 운명에 빠진다는 것이다.
- (3) 위와 같은 추구에는 자기 신격화라는 불합리한 태도가 따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코 행복이 보장될 수 없다(참조, 9:3).
- (4)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독선적이며 자유 방임적인 행위에 대한 심판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허무한 탄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5) 그러므로 덧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자기들이 단지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조물주와의 관계를 가짐으로써만 생의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3:14).

10. **㉠** 본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 ㉠** (1) 잠언 서론 **㉠** 7을 참조하라.

11. **㉠**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1) 잠언 서론 **㉠** 8을 참조하라.

12. **㉠** 본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무엇인가?

Ⓐ (1) 이는 ‘헛되다’ 라는 말로서 40여 회 사용되었다.

(2) 여기서 ‘헛되다’ 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헤벨>은 텅빔 또는 공허함(emptiness), 무의미함(meaninglessness), 불만족스러운 어떤 것, 특히 나쁜 길로 이끄는 것을 뜻한다.

(3) 모든 세대(世代)의 인간들은 헛된 육체의 쾌락과 물질의 부(富)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써 왔다. 본서에서 <코헬레트>는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하게 이런 인생의 헛됨을 묘사하고 있다.

(4)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염세주의적(厭世主義的) 표현을 일종의 숙명론(宿命論)이나 금욕주의를 지지하는 스토아(Stoa) 철학과 동일시한다.

(5) 그러나 이런 견해는 본서의 참뜻을 오해한 것이다. 본서는 허무주의(nihilism)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생에 대한 유물론적(唯物論的)인 견해를 비판했을 뿐이다.

13. ⓐ 본서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라.

Ⓐ (1) 1:1-4:3까지는 전도자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열거되어 있다.

(2) 4:4-9:16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경험한 사실이 열거되어 있다.

(3) 9:17-12:14에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충고가 기록되어 있다.

14. ⓐ 본서에 언급된 전도자의 특성을 약술하라.

Ⓐ (1) 본서에 언급된 전도자는 결코 무신론자(無神論者)가 아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약 37회) 언급한 것 외에도 특별히 하나님을 참하나님으로, 세상의 어느 것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인식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경외와 예배의 대상으로 알고 있었다(5:1, 2, 7, 8; 12:13).

(2) 그리고 전도자는 범신론자(汎神論者)가 아니었다. 전도자가 믿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으로서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시다(12:1).

(3)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으며(12:13), 기도와 제사와 예배로 경배받으실 수 있으며(5:1-7), 두려워할 존재이시며(5:7), 그의 지성적 피조물인 인간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9:7).

(4) 또한 전도자는 비판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전도자는 때로 우울한 인생관을 피력하여 땅 위의 모든 사물들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했으며 더우기 모든 인간이 비극에 편중되어 있고 삶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곤 했었다.

(5) 그러나 전도자는 이런 부정적인 시야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 아래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즐기라고 권면했으며 결코 침울한 결론으로 물고 가지는 않았다(2:24-26; 3:12; 7:10; 9:7; 11:9).

(6)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자유 분방한 사상가도 아니었다. 물론 전도자는 자신의 자유 분방한 처신을 어느 정도 시인하는 것 같았으나(2:1-11) 그것으로 전도자의 사상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

(7) 오히려 전도자는 진지한 삶의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자신의 독백 속에 담고 있었다(12:13, 14).

(8)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사려 깊은 종교적 인물이었다. 그는 삶의 비극을 살펴보았을 때 당황했으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하며 헛된 것이라는 진리도 발견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실망에 휩싸이거나 인생을 자포 자기하지 않았다.

(9) 오히려 인간의 최상의 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어떠한 시련이 자기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침착하게 복종해야 할 것과 자신이 육체 가운데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받을 순간을 위하여 준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참조, 고 후 5:10).

15. ⓐ 본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전 도 서

Ecclesiastes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12:13)

סוף דְּבַר הַכֹּל וְשָׁמַע אֶת־הָאֱלֹהִים יְרָא
וְאֶת־מִצְוֹתָיו שָׁמֹר כִּי־זֶה כָּל־הָאָדָם:

전도서 차례

전도서 서론	〈17제〉	241
제 1 장 만물의 무상(無常)을 가르치는 전도자	〈18제〉	248
제 2 장 인생(人生)의 무의미(無意味)	〈20제〉	255
제 3 장 만물에 기한(期限)이 있다	〈19제〉	266
제 4 장 인간의 헛된 노력	〈13제〉	274
제 5 장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의 선물	〈13제〉	281
제 6 장 헛된 재물	〈13제〉	287
제 7 장 사람의 악에 관한 충고	〈22제〉	293
제 8 장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	〈17제〉	303
제 9 장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다	〈13제〉	312
제 10 장 지혜와 우매(愚昧)의 비교	〈15제〉	319
제 11 장 적극적인 삶을 살라	〈10제〉	327

- Ⓐ (1) 본서는 우리들에게 비판주의적인 교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즉 과거와 현재가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허무한 삶이었기에 미래도 전혀 희망을 갖고 대처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 (2) 또한 본서는 한 유대인 청년의 회의주의로부터 관능을 통하여 믿음으로 진행되는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이상론(理想論)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 (3) 오히려 본서는 불의가 정의를 꺾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일과 세상의 것이 헛됨을 보여 주고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 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 (4) 그러므로 본서는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제공해 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그 행복의 비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12:13).

16.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머리말-저자와 논제(論題) / 1:1-3
- (2) 인생 무상(人生無常) / 1:4-2:26
- ① 인생의 허무함 / 1:4-11
 - ② 인간의 지혜의 허무함 / 1:12-18
 - ③ 기쁨과 재물의 허무함 / 2:1-11
 - ④ 유물주의(唯物主義)의 허무함 / 2:12-23
 - ⑤ 결론-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라 / 2:24-26
- (3)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 3:1-22
- ① 생활에 질서를 주시다 / 3:1-11
 - ② 생(生)의 선물을 주시다 / 3:12, 13
 - ③ 장래의 심판을 보여 주시다 / 3:14-21
 - ④ 결론-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 3:22
- (4) 인간의 헛된 노력 / 4:1-5:20
- ① 학대받는 자의 눈물 / 4:1-3
 - ② 이웃의 시기(猜忌) / 4:4-6
 - ③ 경쟁과 협조 / 4:7-12
 - ④ 정치적인 성공 / 4:13-16
 - ⑤ 거짓 예배 / 5:1-7
 - ⑥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재물 / 5:8-17
 - ⑦ 결론-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환경에 만족하여 수고하고 낙을 누림이 행복한 일이다 / 5:18-20
- (5) 인간 생활의 종말론적(終末論的) 관찰 / 6:1-12
- ① 누리지 못하는 재산의 헛됨 / 6:1-9
 - ② 괴로운 인생의 장수(長壽) / 6:10-12
- (6) 인생을 위한 충고 / 7:1-12: 8
- ① 잘 규율된 생을 위한 실제적 조언 / 7:1-14
 - ② 인간의 최악 문제 / 7:15-22
 - ③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은 많은 죄를 낸다 / 7:23-29
 - ④ 왕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 / 8:1-8
 - 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지혜 / 8:9-17
 - ⑥ 의인과 악인의 같은 운명 / 9:1-10
 - ⑦ 큰 힘보다 나은 가난한 지혜 / 9:11-16

- ⑧ 지혜와 우매(愚昧)의 비교 / 9:17-10:4
- ⑨ 모순 덩어리인 인간 생활 / 10:5-15
- ⑩ 한 나라에 숨어 있는 패망의 요인들 / 10:16-20
- ⑪ 주어진 하루에 충실하라 / 11:1-8
- ⑫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 11:9-12:8
- (7) 끝맺는 말-인간의 본분(本分)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 12:9-14
- ① 인간 생애에 대한 지혜로운 교훈 / 12:9, 10
- ② 실제적 생활에 유익한 교훈 / 12:11, 12
- ③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심판을 피하라 / 12:13, 14

17.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本分)이니라' (12:13).

화보자료

18세기 성경의 전도서 속표지. 아래의 표지 속에 나타난 그림은 화제와 홍수 가운데 인간의 문명이 재난을 입은 모습으로서 본서의 주제인 '헛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LECCLESIASTE.

CHAPITRE PREMIER.

Tout est rempli de vanité. Rien de nouveau sous le soleil. L'étude de toutes choses est difficile & vaine, & remplit l'esprit d'ennui & de chagrin.

본서의 기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는 허무주의적인 태도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세상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는 태도 등이 헛됨을 가리키는 진실한 고백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었다.

연구자료

전도서에 나타난 인생관

본서에 나타난 저자의 인생관은 표면적으로 볼 때 극단적인 염세주의적(pessimistic)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본서 전반에 걸쳐서 이 세상에 그 야망과 욕구를 둔 인생은 궁극적으로 허무감만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역설(力說)하였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1:15).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5:10). 그리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煩惱)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것은 곧 근심을 더하는 것이니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며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을 뿐이다(1:18; 12:12) 이러한 경향이 철학적인 사조(思潮)로 근대 사회에 나타난 것이 곧 염세주의(pessimism)이며 허무주의(nihilism)이다. 그런데 삶에 대한 저자의 이 같은 관념은 단지 그의 머리 속에서 이해되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것이었으니(2:1-11) 못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한 본서에서 저자는 죽음의 불가피성과 보편성을 제시하면서 인생의 허무를 증거하고 있다. 그는 짐승에게 죽음이 임하듯이 사람에게도 죽음이 임하니 죽음이란 문체에 있어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점이 없다고 하였다(3:19).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견해만이 본서의 저자가 표방하는 자신의 궁극적인 인생관은 아니다. 우리가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사실은 위와 같은 관념들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즐거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역설한 점이다(2:24; 3:22; 8:15). 그는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현세의 영광이나 쾌락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될 때에는 절망과 공허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그는 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이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줄을 아는 자에게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3:13, 22). 그래서 그는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9:4)고 설파(說破)한 것이다. 결국 본서의 저자는 인생에 대한 유풃론적(materialistic)이며 허무주의적인 견해를 비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코 낙망치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참조, 8:12, 13). 본서의 저자는 이처럼 서로 대비되는 인생의 두 측면을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는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12:13).

제 1 장 만물의 무상(無常)을 가르치는 전도자

단락구분 1 저자(著者)를 소개하다 / 2-11 인생의 허무함을 거듭 강조하다 / 12-18 인간의 지혜와 행위가 모두 헛되다고 하다

-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 2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 3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 4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 5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 6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 7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 8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 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 10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 11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 12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 13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 14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 15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쥘 수 없도다
- 16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 17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 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 ㉠ 본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무엇인가?

- ㉠ (1) 본장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 것이다. 이 사상은 본장 전체를 뒤덮고 있을 뿐더러 본서를 일관하는 주제가 되고 있다.
- (2) 또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사상은 롬 8:20-22의 내용과도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허무한 존재로 전락하였다.
- (3) 그러나 이와 같은 사상은 비관론이라기 보다는 죄에 휩싸인 삶의 본질이 덧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4) 즉 인간이 지은 죄의 영향과 결과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 자체는 이제 전혀 의미 없고 공허하여 괴로운 것이 되어 버렸다는 사상이다.
- (5) 본장의 이러한 사상의 출발은 그치지 않고 전도자의 독백이 계속되면 될수록 더 깊은 무의미와 공허로 치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6) 그런데 이런 무의미와 공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逆說)이다.

2. **㉠** 본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1절)

- ㉠** (1) 본장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傳道者)의 말씀이니라'로 시작되고 있다.
 (2) 여기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라는 세 칭호를 모두 만족시켜 주는 인물은 이스라엘 제 3대 왕 솔로몬밖에 없다(참조, 서론 ㉠2, 3).
 (3)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그가 부친의 신앙과 삶을 그대로 본받은 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4) 그리고 '전도자'란 칭호는 집회를 주관하고 연설하는 자를 의미한다(참조, 서론 ㉠1). 즉 '전도자'란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운 말을 전하려고 백성 앞에 서는 자를 가리킨다.
 (5) 이처럼 솔로몬은 지금부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공적인 인정에 기초한 것임을 철저히 밝히고 있다.

3. **㉠** 전도자는 무슨 말로써 자신의 독백을 시작하고 있는가? (2절)

- ㉠** (1)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로써 자신의 독백을 시작하고 있다.
 (2)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호흡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헤벨>로서 일시적이고 덧없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한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서론 ㉠11).
 (3) 그런데 '헛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헤벨>은 뜻과 어원(語源)이 창4:2에서 등장하는 '아벨'과 동일한데 그것은 형의 손에 살해되어 생명이 끊긴 덧없는 인간에 대한 적절한 호칭이다.
 (4) 그리고 '헛되고 헛되니'라는 이중적 묘사는 '하늘들의 하늘'(왕상8:27)이나 '노래 중의 노래'(아1:1) 등과 같이 최상급을 나타내는 말로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는 '가장 헛되다'라고 묘사할 수 있다.
 (5) 사실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참조, 시39:5;62:9;90:9).
 (6) 이처럼 인생이 '허무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죄 때문이다(창3:6-19; 롬8:20).

4. **㉠** '해 아래서'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3절)

- ㉠** (1) '해 아래서'란 말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가리킨다(참조, 9, 14절; 2:11, 17).
 (2) 다시 말하면 '해 아래서'란 지상의 일들, 곧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죄악스러운 환경과 거기에서 전개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킨다.
 (3)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하늘 아래'(1:13; 2:3; 출17:14; 눅17:24)와 '세상에서'(8:14, 16; 창8:17)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
 (4) 그런데 전도자는 이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 즉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인간의 생활이나 활동이 모두 헛된 일이며 참기쁨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단정지었다.
 (5) 사실 하나님과 단절된 생(生)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인생의 활동은 헛되며 아무 낙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다(참조, 행17:25).

5. **㉠** '유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3절)

- ㉠** (1) '유익'이란 '남아 있는 것', '이점'이라는 뜻으로서 생(生)의 대차 대조표(貸借對照表)에서 이익으로 남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 (2)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소유와 경험이 죽은 후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참조, 눅 12:16-21).
- (3) 예수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사람이 만일 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 16:26) 라고 말씀하셨다.
- (4)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생을 가장 값지게 살며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행복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을 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참조, 마 19:16-29).

6. **㉠ 전도자는 인생과 땅을 어떻게 비교했는가? (4절)**

- ㉠** (1) 전도자는 인생과 땅에 대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비교했다.
- (2) 사실 인간은 이 세상의 순례자에 불과하다(참조, 벰전 1:17; 2:11).
- (3) 이처럼 인간의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지만 땅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은 채 계속 남아 있다.
- (4) 여기서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는 말은 땅이 불변하다는 것이 아니라 땅이 인간보다 비교적 오랫동안 존속된다는 말이다(참조, 창 49:26; 출 21:6).
- (5)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보다 하등한 피조물의 상태보다 못한 존재임이 밝혀졌다.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욕심을 부리며 맘 흘려 수고하는데 이 모든 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이러한 헛된 노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시야의 초점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두는 것이다(참조, 골 3:1).

7. **㉠ 전도자는 인생의 무상(無常)함을 자연의 어떤 현상에다가 비유하였는가? (5, 6절)**

- ㉠** (1) 전도자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불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로서 비유하였다.
- (2) 이러한 표현은 인생의 허무함을 잘 나타낸 것이다.
- (3) 흔히 사람들은 젊었을 때에는 자신 만만하게 활동한다(참조, 시 19:5, 6).
- (4) 그러나 그것이 순간적이며 허무한 것이 되어 버린다. 바람의 활동이 요란하나 얼른 지나가고 마는 것처럼 인간의 영화도 금방 없어진다(참조, 시 39:5-7).
- (5)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사 40:6-8) 고 선포했던 것이다

8. **㉠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란 말은 무엇을 비유한 말인가? (7, 8절)**

- ㉠** (1) 이 말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비유한 말이다(7절).
- (2) 계속해서 전도자는 채울 길이 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였다(8절).
- (3) 이처럼 인간의 욕심이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죽음만이 그 욕심을 감당할 수 있다(참조, 약 1:15).
- (4) 이런 의미에서 잠언 기자는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잠 27:20) 고 하였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에나 감사하며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줄 아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참조, 빌 4:11-13).
- (6) 이와 같은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삶의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참조, 살전 5:16-18).

9. ㉠ 전도자는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8절)

- ㉠ (1) 전도자는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만물의 피곤함'이라고 했다.
 (2) 여기서 '만물의 피곤함'이란 사람에게 관계된 모든 일이다 피곤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관계된 모든 일은 침체와 무의미 그리고 무익한 것일 수밖에 없다.
 (3) 모든 창조 세계를 관찰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몫이 되지 못하며 인간에게 진정한 쉼을 제공하지 못한다.
 (4) 이 세상은 결국 피곤한 땅에 불과하다. 이런 피곤한 땅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5)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이 피곤함을 자아내게 된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창3:6-19).

10. ㉠ 전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새로운 것이 있다고 보았는가? (9, 10절)

- ㉠ (1) 전도자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고 보았다. 즉 전도자는 자연 법칙과 그 현상의 객관적 과정 뿐만 아니라 사람의 주관적 노력과 활동에서조차도 새로운 것은 없다고 역설하였다.
 (2) 결국 변화를 좋아하는 인간들은 이 세상의 일상성(日常性) 속에서 감격과 환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지루함과 허무만을 느끼게 된다.
 (3) 그런데 이 세상에 지루함과 허무만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참조, 3:14, 15).
 (4)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찾게 되는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적을 조성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사 40:31).
 (5)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인격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 모든 피곤함을 떨쳐 버릴 수 있게 된다(참조, 고후 5:17; 골 3:10).

11. ㉠ 전도자는 인간의 삶이 영속되는 것으로 보았는가? (11절)

- ㉠ (1) 전도자는 인간의 삶이 한 세대로서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것으로 보았다.
 (2)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고 하였다.
 (3) 즉 후세대의 사람들이 전세대의 사람들을 거의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제아무리 당대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의 명성은 당대로서 끝나 버린다는 것이다.
 (4)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버리는 삶을 가지고 인간이 노력하고 땀흘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짓임에 분명하다.
 (5) 그러므로 인간은 유한한 자신의 명예나 부귀만을 추구하는 데 온 심혈을 쏟지 말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에게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참조, 시 39:7).
 (6)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은 또한 영원의 속성을 덧입게 될 것이다.

12. ㉠ 전도자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2절)

- ㉠ (1) 전도자는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2) 이러한 소개로부터 우리는 전도자가 왕국의 분열 이전에 왕위에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삼상 15:26).
 (3)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로 인하여 온갖 종류의 학문과 경험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며 특히 정치와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두루 통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그런데 전도자가 자신의 높은 직함을 이렇게 거듭 소개한 것은(1:1) 자신의 명예를 과시하기 보다는 인생의 허무가 지위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5)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허무의 늪에서 빠

저 나올 수 있다(참조, 눅18:13, 14).

13. ㉠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窮究)하며 살핀 후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13절)

- ㉠ (1)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고로운 일을 주시어 고생하게 만드신다는 것이다.
- (2) 즉 전도자가 자신에게 있는 지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7:25; 단10:12) 또한 모든 사건과 사물을 깊고 넓게 관찰한 후 내린 결론은 인간이 불행한 업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맡았다는 것이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결코 무거운 짐을 맡겨 주시지 않았다. 단지 인간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통괄하는 직책을 맡기셨을 뿐이다(참조, 창 1:27-31).
- (4)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회피할 수 없는 짐을 맡기셨던 것이다(참조, 창 3:16-19).
- (5) 이처럼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고하도록 맡기신 것은 모두 불행한 업무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인간을 바라보고 연구할 때는 허무한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14. ㉠ 전도자는 해 아래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4절)

- ㉠ (1) 전도자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하였다.
- (2)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지향이 없고 무익한 것으로 아무 영구한 가치를 내지 못하는 바람을 잡으려는 행위와 흡사하다고 하였다(참조, 사44:20; 호 12:1).
- (3)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본질이 허무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 (4)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은 곧 무의미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참조, 롬 7:24).

15. ㉠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5절)

- ㉠ (1)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즉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수완을 최대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큰 역사의 물줄기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또한 보충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 (3) 참으로 인간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으며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도 없다(참조, 렘 13:23).
- (4) 만약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을 구하고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가장 미련한 자임에 분명하다(참조, 잠 26:12).
- (5)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도취되지 않는 가운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지니는 참지혜이다(참조, 눅 5:5-8).

16. ㉠ 전도자는 자기 심중(心中)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였는가? (16절)

- ㉠ (1) 전도자는 자기 심중에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다' 라고 말했다.
- (2)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란 다윗 이외의 델기세텍(창 14:18)과 아도니세텍 같은 여부스 왕(수 15:63; 삼하 5:6-10) 들을 포함시켜서 솔로몬 이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자들을 가리킨다.
- (3) 그가 이렇게 자기 이전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와 지식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4) 여기서 '지혜'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그리고 생활면에 치중한 지혜를 가리키며, '지식'

이란 사색적인 면에서의 지식을 말한다(참조, 사 33:6; 롬 11:33).

- (5) 이처럼 인간이 습득한 지혜와 지식은 인간 세계에서 충분한 대우와 훌륭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든다.
- (6)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행복이나 기쁨을 측정할 수는 없다. 즉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이 많다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는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삶의 근본 의미를 깨우쳐 주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17. Q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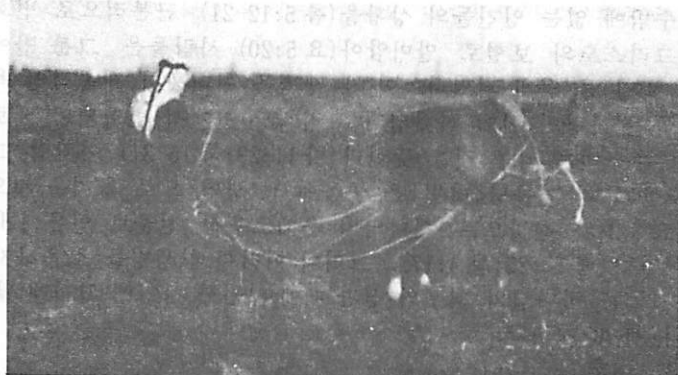
- A (1)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은 인간을 욕되게 만드는 거짓 지혜를 가리킨다(참조, 2:12).
- (2) 여기서 '미친 것'이란 모든 질서와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말하며, '미련한 것'은 악하고 사특하여 경건함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

18. Q 전도자는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는가?(18절)

- A (1) 전도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煩惱)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는 말로써 인간에게 있어서의 지혜와 지식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2) 사실 인간은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방탕하기 쉽다(참조, 고전 8:1).
- (3) 뿐만 아니라 인간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모든 인간사(人間事)의 불안전하고 불만스러운 본질에 대해 슬픔을 느끼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에게 번뇌도 깊어지고 근심도 더 쌓이게 된다.
- (4)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질수록 그 개인을 더욱 평안한 삶으로 또한 더욱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간다(참조, 딤후 3:15-17).

화보자료

말을 몰며 밭을 가는 농부. 이 농부의 수고는 생존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이 수고는 그의 생활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고도 하나님을 떠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역시 헛된 것이다(3절). 하지만 주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그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참조, 골 1:29; 딤후 4:10).

연구자료

성경에 나타난 생명관(生命觀)

성경에 나타난 생명관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즉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며 생명이 유지되는 '삶'도 역시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진행된다. 이 같은 사상은 본서에도 여러 번(3:19;5:20;6:12)나오는데 이를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구약의 생명관

천지 창조의 기록(창 1,2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민 14:28;삿 8:19)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참조, 삼상 2: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피조물은 죽게 된다(신 5:23;사 37:17). 따라서 사람은 자기를 죽이거나 남을 죽일 권리가 없다(출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참조, 창 1:22, 28). 또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장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으며(출 20:12;레 18:5) 단명(短命)은 죄에 대한 형벌로 보았다(욘 8:13;시 9:18). 사실상 장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의 축복이기도 하다(신 5:33). 하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신 30:20)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곧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

2. 신약의 생명관

신약에 나타난 생명에 대한 개념은 주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참생명과 관계된다(롬 1:17;벧전 3:7).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상황을(롬 5:12-21)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요 5:20)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새 생명은 여태까지 세속적인 욕심을 좇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마 11:29;눅 15:31)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重生)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것으로서(요 3:3-8)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로 인류에게 배풀어졌다(행 17:25;롬 4:17). 그러나 이러한 참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제 20:14, 15).

3.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생명'은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요 5:26)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것같이(롬 5:1, 10)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참조, 롬 2:7;고전 15:22, 23).

제 2 장 인생 (人生) 의 무의미 (無意味)

단락구분 1-11 기쁨과 재물의 허무함 / 12-16 이 세상의 지혜가 헛되다 / 17-23 이 세상의 수고가 헛되다 / 24-26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즐거워하며 만족하게 살라

1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2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회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3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슬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4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5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몰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7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8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9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10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11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12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13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14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

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15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16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지 오렐 것임이라 오히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7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

18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19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20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21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22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23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4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25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라

26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회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전장(前章)에서 지혜 추구의 결과로 만족을 얻지 못한 전도자는 감각적이고 현세적인 쾌락이 보다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 쾌락에 대하여 본장에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 (2) 그는 계속해서 그가 이 세상에 대해 허무를 느끼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이 세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3) 이러한 인간의 삶의 모순에 대하여 전도자가 얻은 해답은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주어진 생(生)을 사는 동안에 자족하면서 즐거워하자는 것이다.
- (4)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무절제와 방종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자족하며 성실히 행하자는 것이다.
- (5) 인간의 삶은 육체적인 연한이 다한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연결되어 시작되는 내세(來世)가 분명히 있다.

2. **㉠** 전도자는 지혜를 추구한 후 허무만을 얻게 되자 본장에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했는가? (1절)

- ㉠** (1) 전도자는 본장 초두에서부터 향락에 몸을 담구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 (2) 즉 전도자는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에 대한 생각은 접어 두고 이기적인 쾌락과 즐거움에서 최고의 선(summum bonum)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 (3) 그러나 이것들, 즉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 뒤에도 역시 허무가 찾아왔다.
- (4) 오늘날에도 근본적인 삶의 목적을 영혼의 고상한 충동에 복종시키기 보다는 육체의 저급한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참조, 딤후 3:4; 약 5:5).
- (5) 이들은 전도자처럼 어떠한 목적을 두고 방탕한 생활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의 요구에 대해 그대로 반응할 따름이다.
- (6) 여하튼 그 동기가 어떻게 되든지 세속적인 만족과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살아 있거나 죽은 것 같은(딤후 5:6) 자로서 그 삶에 허무만이 발견될 것이다(참조, 딤후 3:3).

3. **㉠** '웃음'과 '희락'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가? (2절)

- ㉠** (1) '웃음'과 '희락'은 육체적 쾌락을 상징하는 말이다(참조, 잠 14:13).
- (2) 전도자는 이러한 육체적 쾌락에 대해서 그것은 미친 것이며 인간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3) 사실 육체적 쾌락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과 경건한 일들로부터 격리시켜 끝내는 육체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만다(참조, 딤후 3:4).
- (4) 또한 육체적 쾌락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공허와 절망으로 이끌며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행하게 만든다(참조, 딤후 5:6).

4. **㉠** 전도자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첫번째 시도한 일은 무엇인가? (3절)

- ㉠** (1) 전도자는 술을 마시며 육신을 즐겁게 하려 했다.
- (2) 즉 그는 탐구하는 자의 마음을 접어 두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뛰어들어 육체적 환락을 맛보려고 했다.
- (3)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이 몰두했던 지성적인 방법을 접어 던져 버리고 감각적 쾌락에 자신을 맡겨 버리기 위해서 술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 (4) 비록 전도자가 육체적인 쾌락을 최상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을 가까이 한 이상은 육체적인 쾌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술이란 인간의 육신적 본능을 발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시 104:15).
- (5)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엡 5:18)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5. **㉠ 전도자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3절)**

- ㉠** (1) 그것이 인간의 갈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종신토록 생활함에 있어서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 있었다.
- (2) 그러나 전도자가 이러한 실험을 피하였으나 이것 역시 헛된 것임을 발견하였다.
- (3) 왜냐하면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면서 동시에 정신적으로 참다운 지혜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는(마6:24) 자들 만큼이나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 (4) 인간은 항상 어느 한쪽에만 귀속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며 어느 한쪽만을 섬겨야 하는 제한된 존재이다(참조, 마6:24).
- (5)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세상은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절대 삼가해야 할 부분이다.

6. **㉠ 전도자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술을 가까이 한 후 그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무엇인가? (4-8절)**

- ㉠** (1) 전도자가 그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예술과 문화의 심미(審美) 활동이었다.
- (2) 그가 시도한 것은 집들과 포도원을 마련하고(4절) 동산과 과원(果園) 그리고 못을 만들었으며(5, 6절) 노비들과 소, 양을 사들였고(7절) 보배들을 사들였으며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8절).
- (3) 이 모든 소유는 전도자가 '자기를 위하여' 마련했던 것으로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것이 그 특징이다.
- (4) 이처럼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일에 몰두하게 되면 끝내는 타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 (5) 이와 같이 전도자가 타락의 길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의 향락을 위해 국가적 재산을 탕진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 여인을 첩으로 불러들여 끝내 외국의 우상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이다(참조, 왕상 11:1-8).

7. **㉠ 전도자는 자신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몇 년의 정열을 쏟았는가? (4절)**

- ㉠** (1) 전도자는 자신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13년의 긴 세월 동안 애썼다(참조, 왕상 7:1).
- (2) 그가 소유했던 집으로는 다윗으로부터 전해 받은 백향목 집(대하 2:3)과 창고(대상 27:25-31)와 자신의 궁궐(왕상 7:1-9) 등이 있었다.
- (3) 그런데 여기서 전도자가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언급이 제외된 것은 그것이 전도자 자신의 쾌락을 위해 건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4) 여하튼 전도자는 자신의 영예와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가의 재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긴 시간 동안 집을 짓는 데 허비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 (5) 이처럼 세상에서 권력을 소유한 자들은 흔히 그 권력을 공공의 이익과 나라 전체의 발전에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심히 부패한 행동을 하곤 한다.

8. **㉠ 전도자가 소비했던 노비들은 어떤 종류의 노비들이었는가? (7절)**

- ㉠** (1) 전도자가 소유했던 노비들은 돈으로 사들인 노비들과 집에서 나게 한 노비들이었다.
- (2) 여기서 돈으로 사들인 노예들은 그 출신이 주로 외국인, 전쟁 포로, 흑인(렘 38:7) 등으로써 대부분 육체 노동자들이었다.
- (3) 그리고 집에서 난 중의 자식들은 주로 집안 일을 돌보게 만들었다(참조, 창 14:14; 15:3; 렘 2:14).
- (4) 인간을 이렇게 노예로 삼은 것은 그 당시의 사회 제도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제도는 아니었다. 누구든지 인격을 가진 한 인간을 자신의 종, 즉 소유물로 생

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큰 죄악이다.

- (5) 요즈음도 돈과 권력을 이용해 인간을 자기의 전유물로서 또는 종으로서 취급할 뿐 아니라 더우기 자기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무리들이 많다.

9. **㉠** ‘노래하는 남녀’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8절)

- ㉠** (1) ‘노래하는 남녀’란 왕실 연회석이나 사회적인 축제 때에 그곳의 흥취를 돋우기 위하여 출연하는 가수(歌手)들이었다.
 (2) 그들에 대한 언급은 다윗의 시대(삼하 19:35)와 그 이후(사 5:12; 암 6:5)에 나온다.
 (3) 이러한 연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인들은 보편적으로 방탕한 계층이었다.
 (4) 시간이 흐르고 나라가 부강해짐에 따라 이스라엘 사회는 다른 이방 나라들로부터 들어온 풍습과 행실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는데 그것을 더 부채질한 것은 위의 ‘노래하는 남녀’들이었다.
 (5) 예전보다는 훨씬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전도자 당시의 사회 현실과 너무도 흡사한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10. **㉠** 전도자는 자신의 무절제한 향락 추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0절)

- ㉠** (1) 전도자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고 하였다.
 (2) 사실 인간의 본능적 욕구는 끝이 없어서 만족함이 없고 계속적으로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추구하려 든다.
 (3) 그러므로 본능의 욕구를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그것이 추구하는 바에 얽매어 급기야는 본능의 노예가 되고 만다.
 (4) 이렇게 본능의 노예가 되어 버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끝내 절망과 비탄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 2:16, 17).

11. **㉠** 전도자는 육체적인 쾌락을 모두 경험한 후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였는가? (11절)

- ㉠** (1) 전도자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2)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모든 쾌락이 진정한 인간의 선에 대한 그의 기대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결론을 맺었다.
 (3)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와 모든 추구하는 바는 무익한 것이며(1:3) 지속적인 행복도 없으며 영혼의 갈망에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한다.
 (4)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즐거움은 전도자가 추구했던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이다(참조, 마 6:29).

12. **㉠** 전도자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최후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는가? (12-17절)

- ㉠** (1) 전도자는 차이가 전혀 없다고 보았다. 즉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같이 자기에게 처한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으며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2) 물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실된 자세로 바라보며 관찰하고 마침내는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3)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어두움 속에서처럼 더듬거리며 자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4)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을 능가하는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한 날에 생명이 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곧 잊혀지기는 마찬가지이다(16절).

- (5) 이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시 49:10) 라고 하였다.
- (6)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죽음 후에도 보호의 손길을 놓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와 명성을 얻는다 해도 모두 헛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 지혜와 우매는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 (13절)

- ㉠ (1) 전도자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같도다' 라고 그 차이점을 설명했다.
- (2) 여기서 '빛'은 단순히 어두움을 밝혀 주는 기능을 발휘할 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제공해 주는 창조적인 힘으로서 그것이 비취는 곳은 항상 밝고 생동감이 넘치는 진취적인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 (3) 반면에 이러한 빛이 차단된 결과로 생기는 '어두움'은 모든 생물로부터 생명을 빼앗아가며 무질서와 혼돈, 공허, 흑암(창 1:2)을 비롯해 공포, 좌절감, 허무 등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죽음의 세계를 불러일으킨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는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의 힘을 제공해 주며 반면에 우매는 헛되고 허무한 결과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참조, 7:12; 10:1; 시 53:1; 잠 18:6; 26:11).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입장은 너무나 명백해진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잠 8:10; 사 11:2)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항상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딤후 6:17; 약 1:5) 이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대하 1:10; 시 90:12; 잠 2:3; 엡 1:17; 골 1:9; 약 1:5).
- (6) 한편 성경에 나타난 빛과 어두움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의미 \ 구분	빛	어 두 움
일반적 의미	자연의 빛 : 창 1:3, 17; 출 10:23; 욥 36:30	① 자연의 어두움 : 창 1:2, 18; 욥 3:6; 38:19; 사 104:20; 암 4:13 ② 초자연적 어두움 : 출 10:22; 시 105:28; 마 27:45; 계 6:12
영적 의미 및 상징적 의미	① 성도 : 삿 5:31; 사 60:3; 마 5:14; 행 13:47; 엡 5:8; 빌 2:15; 살전 5:5 ②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밝히는 빛) : 사 9:2; 112:6; 마 4:16; 눅 1:79; 요 1:4, 9; 8:12; 12:35, 46; 고후 4:6; 엡 5:14; 계 21:23 ③ 여호와 하나님 : 시 27:1; 36:9; 84:11; 118:27; 사 60:20; 미 7:8; 함 3:4; 요일 1:5; 계 22:5 ④ 하나님의 속성 ㄱ. 하나님의 선 : 시 4:6 ㄴ. 하나님의 인도하심 : 시 78:14; 89:5 ㄷ. 하나님의 지혜 : 단 2:21, 22 ㄹ. 하나님의 품성 : 삼하 23:4; 호 6:5; 요일 1:5	① 형벌을 상징 : 욥 18:5; 잠 20:20; 마 8:12; 22:13; 벧후 2:17; 유 1:6 ② 영적인 어두움 : 신 28:29; 시 35:6; 잠 4:19; 사 59:9; 렘 23:12; 미 3:6; 습 1:17; 마 6:23; 15:14; 요 1:5; 3:19; 11:10; 롬 13:12; 살전 5:4; 요일 1:6 ③ 상징적 의미 ㄱ. 고난 : 욥 30:30; 애 5:10 ㄴ. 비애 : 렘 8:21 ㄷ. 재앙의 전조 : 욥 2:6 ㄹ. 비진리 가운데 있는 인간 : 요 1:4; 엡 5:8 ㅁ. 세상에 대한 묘사 : 요 8:12; 12:46 ㅂ. 하나님과는 반대 요소 : 요일 1:5

⑤ 하나님의 말씀 : 시 119:105; 요 1:1-4 ⑥ 약속된 축복 : ㄱ. 순종하는 자에게 : 욥 22:8; 시 97:11 ㄴ. 정직한 자에게 : 시 112:4 ㄷ. 의로운 자에게 : 잠 4:18 ㄹ. 공물을 베푸는 자에게 : 사 58:8 ㅁ. 교회에게 : 사 60:20 ㅂ.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 요 8:12; 요일 2:10	④ 흑암으로서의 어두움 ㄱ. 고난 : 시 112:4 ㄴ. 죽음의 땅 : 욥 10:21, 22 ㄷ. 죄의 길 : 엡 5:11 ㄹ. 악한일의 전조 : 나 2:10 ㅁ. 사단의 지배 : 골 1:13 ㅂ. 도덕적 부패 : 롬 13:12 ㅅ. 무지 : 요일 2:8-11
--	--

14. ㉠ 성경에 나타난 지혜(자)와 우매(자)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보고 이를 비교해 보라 (14절).

- ㉡ (1) 본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을 밝히긴 하였지만 결국은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2)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에서는 그 차이점을 엄밀히 구별하고 있는데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내 용
지 혜 (자)	지혜의 근원	① 여호와와 신(출 31:3; 사 11:2) ② 여호와(출 36:1, 2; 잠 3:19) ③ 여호와와 율법(신 4:6) ④ 여호와를 경외함(욥 28:28; 잠 9:10) ⑤ 의로움(잠 10:31) ⑥ 그리스도(고전 1:24)
	지혜의 가치	① 복을 줌(잠 3:13) ② 이득이 많음(잠 4:5-10) ③ 악으로부터 지킴(잠 5:1-6) ④ 진주보다 나옴(잠 8:11) ⑤ 금보다 더 가치 있음(잠 16:16) ⑥ 생명을 보존함(7:12) ⑦ 능력 있게 함(7:19) ⑧ 병기보다 나옴(9:18) ⑨ 선한 열매를 맺음(약 3:17)
	지혜에 대한 묘사	① 정치적 수완(창 41:33) ② 전문적인 솜씨(출 28:3) ③ 상식(삼하 20:14-22) ④ 기계를 만드는 기술(왕상 7:14) ⑤ 지식(잠 10:13, 23) ⑥ 전투 능력(사 10:13) ⑦ 상업업적 수완(겔 28:3-5)
	지혜의 한계점	① 유혹당하게 할 수 있음(사 47:10) ② 자기 사랑의 원인이 됨(렘9:23) ③ 더러워질 수 있음(겔 28:17) ④ 구원을 보장받지 못함(고전 1:19-21)
	참된 지혜	① 경험으로 얻어진 지혜(욥 32:7; 시 111:10; 잠 1:20) ② 최상의 재산(잠 4:7; 9:1) ③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호 14:9) ④ 인생의 확고한 기초(마 7:24; 고전 2:6) ⑤ 영적 열매가 가득함(약 3:17; 요일 2:20)
	각종 지혜	① 하나님의 지혜 : 시 104:24; 욥 38:36; 잠 3:19; 렘 10:7; 단 2:20, 21; 롬 11:33; 16:27; 고전 1:25 ②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 사 11:2; 마 13:54; 눅 2:40, 52; 고전 1:24; 골 2:3 ③ 신자의 지혜

	<p>ㄱ. 그리스도께서 주심(눅 21:15) ㄴ. 성령의 은사(고전 12:8)</p> <p>ㄷ. 하나님께서 주심(엡 1:17) ㄹ. 교육의 수단(골 1:28)</p> <p>④ 세상의 지혜 : 사 29:14; 47:10; 렘 4:22; 질 28:4; 욥 1:22; 고전 1:19; 3:19, 20; 고후 1:12; 골 2:23; 약 3:15</p>	
지혜를 얻은 자들	<p>① 직공(출 36:12) ② 현숙한 여인(잠 31:26) ③ 브사렐(출 31:2-5)</p> <p>④ 요셉(행 7:9, 10) ⑤ 모세(행 7:22) ⑥ 여호수아(신 34:9) ⑦ 히람(왕상 7:13, 14) ⑧ 솔로몬(왕상 3:12, 16-18) ⑨ 잇사갈 자손(대상 12:32) ⑩ 에스라(스 7:25) ⑪ 동방박사(마 2:1-12) ⑫ 스테반(행 6:3, 10) ⑬ 바울(벧후 3:15).</p>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	<p>시 49:13; 잠 14:8; 15:14; 18:13; 26:11</p>	
우 매 (자)	제한적 지혜(지식)로서의 우매	<p>① 인생이 짧기 때문에 큰 지식을 쌓을 수 없음; 욥 8:9; 시 73:22</p> <p>② 미래를 알 수 없음 : 8:7</p> <p>③ 다가오는 불행을 예견할 수 없음 : 9:2</p> <p>④ 생의 신비를 알 수 없음 : 11:5</p> <p>⑤ 신비로 가득 찬 자연과 은총을 알 수 없음 : 요 3:8</p>
	각종 무지	<p>① 영적 무지 : 사 1:3; 54:8; 렘 5:4; 암 3:10; 미 4:12; 욥 10:3; 엡 4:18; 벧전 1:14</p> <p>② 하나님에 대한 무지 : 삿 2:10; 렘 4:22; 8:7; 9:3; 요 15:21; 16:3; 행 17:23; 딤후 3:7</p> <p>③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 요 1:10, 26; 4:10; 8:19; 9:30; 14:9; 16:3; 행 13:27; 요일 3:6</p>
	우매자의 특징	<p>① 그 생각은 죄(잠 24:9) ② 모든 추악함을 소유(막 7:21, 22) ③ 미쳐버림(7:25) ④ 하나님을 모름(시 69:5) ⑤ 미련함(잠 15:14) ⑥ 성급함(잠 14:29) ⑦ 물질을 좋아함(눅 12:16-21) ⑧ 교만함(잠 14:16) ⑨ 노를 감추지 못함(잠 29:11) ⑩ 어리석은 변론을 좋아함(딤후 2:23) ⑪ 결정을 내리지 못함(눅 11:39, 40).</p>
	우매자들	<p>① 매춘부(잠 9:13-18) ②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마 7:26) ③ 신랑을 맞는 준비를 못한 다섯 처녀(마 25:1-3) ④ 갈라디아 사람들(갈 3:1, 3) ⑤ 이방인들(딤후 3:3) ⑥ 욥의 아내(욥 2:10) ⑦ 어리석은 부자(눅 12:16-21) ⑧ 방종한 여자(딤후 3:6)</p>

15. ㉞ 전도자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탄한 이유는 무엇인가? (18, 19절)

- ㉞ (A) (1) 그 수고의 혜택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을 자, 즉 후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 (2) 더우기 자기의 후계자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도무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한탄은 더욱 짙어졌다(참조, 시 36:9; 눅 12:20).
- (3) 이처럼 해 아래서(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에 대한 혜택이 남에게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 (4)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그 수고에 대한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든지 불안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수고 자체를 감사할 줄 안다.

16. ㉞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에 대한 소득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0-23절)

- (A) (1) 전도자는 그 소득이 슬픔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사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여 수고하는 목적은 기쁨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데 있지 슬픔과 불안을 맛보는 데 있지 않다.
 (3)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는 결코 만족함이 없으며 오히려 분노와 초조가 그 생을 뒤덮고 만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며 수고하는 자들을 가리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라고 한다.
 (4) 그러므로 세상에서 슬픔과 불안만을 가져오는 수고에 지쳐 버린 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고 하셨다.

17. C 전도자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4절)

- (A) (1) 전도자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2) 여기서 '먹고 마시며' 라는 말은 안락하고 화평하며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결코 이것이 육체적인 쾌락을 강조하는 말은 아니다.
 (3) 히브리인들의 사상에서는 이것이 세상의 부귀(렘 22:15) 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잔치(눅 14:15; 계 19:9) 를 의미한다.
 (4) 그리고 '심령으로 낙을 누리다'는 것은 자기의 수고의 즐거움을 맛보며 자신의 모든 노력의 보상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5) 결국 전도자가 언급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란 풍요한 생활을 즐기며 특히 자아(自我)가 실현되며 그 땀의 대가를 충분히 받는 이상적인 세계이다.

18. C 전도자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는 분이 누구라고 하였는가? (24절)

- (A) (1) 전도자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2)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사람에게 풍요한 삶을 제공하며 특히 사람에게 노력의 보상으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3) 결국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1:13)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밝혔다(참조, 눅 12:15).
 (4) 이와 같이 인간의 물질과 정신 생활의 참된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참조, 12:14; 약 1:17)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19. C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勝)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5절)

- (A) (1) 그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 이유는 누가 그를 떠나 먹으며 또 즐길 수 있을까' 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즉 하나님을 제외하고(떠나서는)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거워할 수 있는냐는 의미이다.
 (3) 그러므로 개역 성경의 표현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여하튼 위와 같은 관점에서 야고보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약 1:17)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5) 이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즐거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20. C 전도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6절)

- (A) (1) 전도자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勞苦)를 주시고' 라고 묘사하였다.
 (2)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을 자는(삼상 29:6; 느 2:5)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 (3)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바는 그 마음이 착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이며 장차 올 세상에서 의로움과 함께 희락을 주신다는 진리이다(참조, 마25:34-40).
- (4)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 즉 죄인들은 큰 고통과 계속되는 수고로 부를 축적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 즉 의인의 수증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참조, 욕27:16, 17; 잠28:8; 마25:28).

화보자료

공주. 생생하게 묘사된 아래 사진의 여인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Ptolemaios) 가문의 공주로서 이 부조(浮彫)는 현재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솔로몬은 본장에서 자신이 처와 첩을 많이 두었다고 고백하였다(8절). 사실상 그는 애굽의 공주 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시돈, 헷 등의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왕상11:1-3).

연구자료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본서의 전도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행한 모든 일과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무익한 행위임을 고백했다(1-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와 향락주의가 판을 치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에 미혹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성 윤리의 혼란은 성의 해방을 표방하므로 사람의 지위를 하등 동물로 격하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성 윤리라는 관점에서 일부 다처제를 고찰해 봄으로써 성경적인 결혼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1. 일부 일처제를 반대하는 입장

고대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풍습이 나타나고 있음이 사실이다. 심지어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제를 성문화하여 허용하고 있다.

① 사회주의: 베벨과 같은 학자는 일부 일처제가 남자의 합법적 상속이 가능한 사유 재산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생산 수단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게 되면 일부 일처제는 폐지되고 자유 연애가 실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유 재산 제도가 무너지고 사회주의화 될 때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소련은 러시아가 공산화된 후 이와 같은 이론을 실제적으로 행동화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27년 1월 1일에 다시 혼인법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혼인법이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사유 재산 제도가 폐지될지라도 국가가 혼인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② 낭만주의: 남녀간의 사랑은 파도와 같이 굴곡이 있으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만 동거할 자유를 지니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Ellen Key, Hans Brüher). 이러한 견해는 남녀 상호간의 책임을 배제한 자유 연애 내지 계약 결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불완전하고 모순된 감정을 자유로 방임하면서 '인격성' 또는 '인격적 결합'을 내세우는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고 무책임한 개인주의에 불과하다.

2. 사회적 차원에서 일부 다처제가 갖는 폐단

일부 다처는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속권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파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에 있어서 축첩 제도는 상속이나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 형제간의 유혈극을 빚기도 했다. 성경에서도 축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큰 고통을 겪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야곱,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다. 이외에 만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부 다처제

를 허용하게 되면 창기나 주위의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 나아가 자유 연애의 사상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사생아의 문제와 성병의 오염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강간이나 간통의 죄는 성립될 수도 없게 된다.

3. 일부 다처제에 대한 성경적 입장

구약 성경의 몇 군데에서 이를 허용하는 듯한 기록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아브라함, 야곱,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외에 율법에서도 그러한 인상을 준다(참조, 신 21:15-17). 그러나 이것은 고대 근동의 결혼 목적이 종족 번식에 있었던 사회적 배경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그러한 결혼관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의 돕는 배필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 2:24)라고 명령하셨으며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강경한 어조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 5:31, 32)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사실과 '둘'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우자 이외의 어떠한 사람과 결혼 생활하는 것은 간음 행위임을 강조하셨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제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결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강경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4. 결론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 그리고 향락을 누렸던 전도자가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일을 무익한 것으로 돌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은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의 말대로 미적 실존이나 윤리적 실존에서 종교적 실존으로 도약한 상태라 할 수 있겠다. 한 남자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합당하다면(딤후 3:2, 12), 이와 같은 원리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면서 세속적인 열락(悅樂)에 빠진 자는 종교적 실존, 즉 신령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처와 첩을 많이 두어 쾌락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무익한 행위임을 깨닫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다.

제 3 장 만물에 기한(期限)이 있다

단락구분 1-8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 9-13 인생의 본분 / 14-15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완전성 / 16-21 인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 / 22 인간은 자기의 사명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

1 천하에 법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혈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6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 쬐을 때가 있고 께떨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9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14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16 내가 해 아래서 또 보전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17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8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을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2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1. ㉠ 본장에서 전도자는 깊이 깨달은 사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 (1) 본장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깊이 숙고하고 나서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고백하였다.

(2) 사실 인간이 자기 운명에 대하여 비록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모든 사건이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

(3)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4)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맡기기를 요구하신다(참조, 신 32:39; 시 75:5; 102:13).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신의 운명의 문제에 관하여는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무능하기 때문이다.

2. **㉠ 전도자는 모든 사건과 자연 만물이 어떤 한정된 테두리 내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절)**

- ㉠** (1) 전도자는 '천하에 범사가 기한(期限)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라는 말로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범사'란 말은 인간의 활동과 동작 및 그것에 관련되는 일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목적'이라는 말은 원래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었으나 후대에 와서 '일', '사물', '사건'을 의미하게 되었다.
- (3) 이처럼 자연 만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움직임마저 절대자의 주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4)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시작과 종말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 (5)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한계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압박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참조, 잠 3:5,6).

3. **㉠ 전도자는 인간의 생명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절)**

- ㉠** (1) 그 사실에 대하여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라고 묘사하였다.
- (2) 즉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출생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는 제외하고 사건의 일반적인 순서로써 출생과 사망은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의지에 구애됨이 없이 보다 높은 차원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참조, 히 9:27).
- (3) 여기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마 10:29)처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생(生)과 사(死)를 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설립과 멸망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참조, 렘 1:10; 습 2:11).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참조, 롬 11:36).

4. **㉠ 전도자는 하나님의 공의(公義)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3절)**

- ㉠** (1) 전도자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라고 표현하였다.
- (2)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기근 등을 통하여 당신의 공의를 실현시킨다는 의미이며 '치료시킨다'는 말은 당신의 사랑으로써 다시 건강케 하신다는 말이다(참조, 욥 5:17, 18).
- (3) 즉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널리 퍼져 모든 것을 황폐시키는 때는 죽이는 때이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의를 주장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 (4)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또한 무너뜨린 것을 재건하실 것이다(참조, 시 102:13, 16; 눅 15:11-24).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공의를 실현하시지만 그 이면에 당신의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은총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참조, 시 90:15; 호 6:1, 2).

5. **㉠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그 말은 나라의 부흥과 패망, 전쟁에서의 승리 또는 패전을 나타내는 말이다.
- (2) 다시 말하면 요새를 철거하고 헐어 버림으로써 생긴 '돌을 던지는 때'는 하나님께서 국경에 평화를 주셔서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 없음을 말한다.
- (3) 그러나 적들의 침입으로 성채(城砦)를 쌓기 위하여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마찰과 그들의 존폐(存廢)마저도 당신의 주관 안에 넣으시고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 (5)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군의 경성(警醒)함이 허사로다' (시 127:1) 라고 노래하였다.

6. ⓐ 전도자는 인간이 자신의 재산을 영원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았는가? (6절)

- Ⓐ (1) 그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라는 말로서 그 소유를 영원히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다.
- (2)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얻은 물질에 대해 굉장한 집착을 가져 그 물질이 영원히 자기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참조, 눅 12:16-21).
- (3) 그러나 인간은 단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물질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일 뿐 그것의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참조, 마 25:14-30).
- (4)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때가 자주 있다(참조, 마 19:21; 눅 12:33).

7. ⓐ '찢을 때'와 '깨매 때'는 각각 언제를 말하는가? (7절)

- Ⓐ (1) '찢을 때'란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여서 그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때, 즉 옷을 찢어 지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를 가리킨다(참조, 창 37:29; 44:13; 욕 1:20).
- (2) 그리고 '깨매 때'란 그 슬픈 일이 지나 일상 생활에 돌아오면 찢었던 옷을 꿰매어 입는데 바로 그때를 가리킨다.
- (3) 한편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기도 한데(참조, 왕상 11:30, 31)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자를 슬픔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신다.
- (4)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 찢겨졌든지 당신의 선한 섭리로 인하여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며 또한 분열된 당신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참조, 사 58:12; 마 9:16).
- (5) 이렇게 꿰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8. ⓐ 전도자는 인간 활동의 모든 대가를 당사자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했는가? (9,10절)

- Ⓐ (1) 전도자는 인간 활동의 모든 대가를 그 당사자가 온전히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그는 그 수고에 대하여 아무 보상도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 (2)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활동은 사물 그 자체의 가변성과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참조, 1:3).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활동의 대가를 그 당사자에게 온전히 제공하시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당신의 선하신 경륜이 있기 때문이다(10절).
- (4) 선한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행복스럽고 만족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단련시키고 다양한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다(빌 4:12).

9.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라는 말에서 '모든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11절)

- Ⓐ (1) '모든 것'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심히 좋게 만드셨던 근본적인 피조물이라기 보다는(창

1:31) 오히려 10절에 언급된 ‘노고’를 말한다.

- (2)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어떤 한 목표를 향하여 발전하고 끝내 하나님의 섭리를 만족시키게 된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세계가 분명히 당신의 목적 있는 계획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악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이 세계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참조, 롬 8:28).

10. Q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11절)

- A (1)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무한한 시간의 개념과 불멸을 소망하는 열심을 심어 주신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볼 수 있는 시각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인간에게 존재의 모든 신비를 계시해 주신 것은 아니다.
- (4) 따라서 인간의 한계는 분명한 것이다. 지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도 인생의 절대적 진리와 우주의 모든 섭리를 완전히 깨달은 자는 하나도 없다.
- (5) 그러므로 인간은 단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며 또한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 (6) 이에서 지나쳐 자행 자지(自行自止)하는 것은 교만이며 죄이다(참조, 롬 1:18-23).

11. Q 전도자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삶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2절)

- A (1) 전도자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삶은 없다고 하였다.
- (2) 비록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선을 행하고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 (3) 사실 인간이 선을 행하며 기뻐한다는 것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가리킨다. 이것은 자신의 가족에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자를 무한대로 넓히는 선을 가리킨다(참조, 마 5:46, 48).
- (4) 이와 같은 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헌신적인 것이다(참조, 시 37:3).

12. Q 전도자는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는가? (13절)

- A (1) 전도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 (2) 이 말은 11절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선행의 능력 뿐 아니라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을 즐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 (3) 한편 인간은 원래부터 수고한 대가로 먹고 마시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참조, 창 3:19).
- (4) 또한 인간이 노력하며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것 자체가 은혜이다(시 128:2).

13. Q 하나님의 섭리(攝理)는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는가? (14, 15절)

- A (1)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하며 인간이 감히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참조, 시 33:11).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처사에는 도덕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 (2) 즉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통일성과 불변성을 느끼면서 그것으로부터 의로운 통치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참조, 말 3:6).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사건이 연속적인 순환을 이루도록 결

정하셨다. 그러므로 역사는 계속되지만 동일한 원인들과 현상이 당신의 주권 안에서 진행될 것이다(참조, 계 1:8).

- (4)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인간의 삶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하다.
- (5)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원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 얻은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14. ㉠ ‘재판하는 곳’과 ‘공의(公義)를 행하는 곳’은 각각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 (16절)

- ㉠ (1) ‘재판하는 곳’은 법 말은 곳, 즉 법정을 가리키며, ‘공의를 행하는 곳’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논의할 의회를 가리킨다.
- (2)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정의로워야 할 재판하는 곳과 공의를 행하는 곳에서 악이 판친다고 한탄하였다.
- (3) 사실 재판은 어떠한 권력과 문제 앞에서도 정의와 평등에 입각하여 권위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재판권이 타락하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생긴 필연적인 결과이다.
- (5)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이러한 사회의 모순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이다.

15. ㉠ 세상 법정의 불의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떠한 견해를 피력했는가? (17절)

- ㉠ (1) 세상 법정의 불의에 대하여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 (2) 즉 전도자는 세상 법정에 유행하는 불의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준비된 보상이 있으며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공과(功過)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얻었다.
- (3) 사실 하나님은 의롭고 강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재판관으로서 그의 판결은 오류가 없으시다(참조, 12:14).
- (4)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상 끝날에 실현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참조, 시 37:12-15).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확신하는 자들은 결코 현세적인 고통으로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참조, 롬 12:17-21).

16. ㉠ ‘하나님이 저회를 시험하시리니’란 말은 무슨 뜻인가? (18절)

- ㉠ (1) ‘하나님이 저회를 시험하시리니’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삶의 문제를 제공해서 인간들을 단련시키시며 또한 인간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선하게 또는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말이다.
- (2) 그런데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인간 스스로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의 앞에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도 감사하게 또한 기쁘게 수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될 것이다(참조, 딤후 4:4).

17. ㉠ 전도자는 인간과 짐승과의 관계에 있어 그 공통점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19, 20절)

- ㉠ (1) 전도자는 그 공통점을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라고 묘사하였다.
- (2) 사실 모든 동물에게 있는 생명(호흡)은 하나님의 은사로 간주된다(참조, 창 2:7; 6:17).

시편 기자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시104:30)라고 말했다. 이러한 창조 원리는 인간과 짐승에게 동일한 생명 현상을 가져다 준다.

- (3) 그리고 인간들의 육체적 죽음은 동물의 죽음과 동일하며 생명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지을 수 없다는 점도 매일반(每一般)이다.
- (4)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라고 하였다.

18. **㉠** 전도자는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였는가? (21절)

- ㉠** (1) 전도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표현하였다.
- (2) 이와 같은 표현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둘 다 혼(생명의 기운과 본질)은 가졌으나 짐승의 혼은 땅으로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참조, 시 49:14, 15; 잠 15:24).
- (3) 이처럼 인간은 결과적인 불멸성에 있어서 다른 열등한 동물들과 구분된다. 인간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은 불멸일 수밖에 없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의 삶에 더욱 진지하고 경건한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현세의 삶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19. **㉠** 전도자는 인간의 분복(分福)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2절)

- ㉠** (1) 전도자는 인간의 분복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2) 사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정할 수 없으며 자연의 힘과 역사의 수레 바퀴를 임의로 조절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인간들에게 주어진 은총들을 이용하며 즐거워할 뿐이다.
- (3)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단 1회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참조, 마 6:34; 히 3:13).

화보자료

곰. 생김새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곰은 영리한 동물로 팔레스틴 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래 사진은 팔레스틴 산지에 사는 시리아 곰이다.



죽음에 관한 한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18절) 그래도 인간은 영에 속한 문제를 파악할 줄 아는 존엄한 존재이다.

연구자료

노예에 대한 성경적 입장

고대 세계에 있어서 노예의 역할은 결코 무시될 수 없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주로 전쟁 포로들이었으며 매매가 가능했다. 그런데 17세기에 이르러 미국에서는 연초 재배에 있어서의 경영난을 계기로 그리고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노예 해방론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861년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일어나 1865년 결국 노예 해방은 실현되었다. 그래서 본고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 성경에서는 노예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구약 시대의 노예

구약 성경에 따르면 노예는 전쟁 포로, 매매(참조, 레 25:44-46), 채무(출 21:2-4; 신 15:12), 중여(창 29:24), 상속(참조, 레 25:46) 그리고 출생에 의하여 공급되었다. 이러한 것은 당시의 근동 지방에서 통용되던 노예 제도를 살펴볼 때에 더욱 분명히 이해될 수 있다. 바벨론, 앗수르, 수리아와 이스라엘 이전의 블레셋의 이용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노예들의 노동력이 농업과 공업 분야 및 국가의 대사역 등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소지주의 농민들은 노예의 값이 비쌌기 때문에 노예 노동을 이용하지 않고 대가족 형태의 노동력으로만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처럼 많은 노예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서 노예를 노동력으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히브리 사회에서의 노예는 대부분의 근동 국가에서와 같이 말이나 소처럼 취급되지는 않았고 다만 주인 밑에서 천한 일을 담당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노예를 어떻게 처우했는가를 살펴볼 때에 더욱 분명해진다.

2. 구약 시대에 있어서 노예의 처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는 경우로는 채무자 자신이나 그 자녀를 빚의 담보물로 잡혀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가 가장 많았다(참조, 출 21:5, 6; 신 15:16이하). 일반적으로 어떤 채무자가 그의 딸을 채권자에게 팔면 그녀는 성숙해질 때 주인 또는 그 아들의 처나 첩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 집의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녀는 속량금을 내지 않고도 해방될 수 있었다(출 21:11). 뿐만 아니라 채무 관계로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년, 즉 제 7년 만에 해방될 수 있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인에 의해서 불구자가 된 노예는 해방될 수 있었다(출 21:26, 27). 그리고 노예가 주인에게 맞아 죽으면 그 주인은 형벌을 받아야 했다(출 11:20). 종교 생활면에 있어서도 노

예들은 안식일에 휴식할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만일 그가 할례를 받았다면 언제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출 12:43-45).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집의 노예는 거룩한 제물도 먹을 수 있었다(레 22:11). 이와 같이 구약의 율법은 노예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신약 시대의 노예

이 당시의 노예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A. D. 1 세 기경 로마인들이 노예를 취급했던 방식과 노예를 대단위로 해방 시켰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자유 시민이 감소하여 군역(軍役)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의 이름과 후원 아래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예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로마로 끌려온 유대인 노예들도 로마에 와서 곧 해방되었는데 그 근거로 우리는 카타콤의 묘비에서 노예에 관하여 언급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로마의 해방 노예들이 사업에 성공한 예가 많으며 심지어는 지방 행정관으로도 봉직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는 범죄한 노예도 자유민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A. D. 20년 로마 원로원의 포고령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당시의 노예 제도에 대하여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바울과 베드로는 노예 제도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개종한 노예들에게 주인을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다(엡 6:5-8; 골 3:22-25; 딤후전 6:11 이하; 벧전 2:18-21). 더우기 바울은 도망한 노예가 스스로 그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촉구하였다(참조, 몬 1 장). 이와 같이 어느 서신에서도 기독교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거나 그 노예를 포기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주인들에게 노예를 친절과 배려로써 다루어야 한다고 권면했다(엡 6:9; 골 4:1). 이 말은 노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격체임을 나타내 준다. 다시 말해 개종한 노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란 의미이다(골 3:11).

4. 결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신·구약 성경에는 노예 해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언급한 귀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노예를 율법으로 보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나 자매로 받아들이며 함께 교제했다는 사실은 근대 사회에 이르러 노예 해방 운동의 한 실천적 근거가 될 수 있었다.

제 4 장 인간의 헛된 노력

단락구분 1-3 학대받는 자의 눈물 / 4-6 이웃의 시기(猜忌)와 우매자(愚昧者)의 게으름 / 7-8 무익한 욕심 / 9-12 진교와 상호 부조(相互扶助)의 유익 / 13-16 지혜로운 소년이 늙고 둔한 왕보다 낫다

1 내가 들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2 그러므로 나는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3 이 들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4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5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6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7 내가 또 들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8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 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니 이것

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다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13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14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15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으며

16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 ㉠ 본장의 말은 주로 어떤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가?

- ㉠ (1) 전도자는 개인에 대한 허무를 피력한 다음 본장에서부터 대상을 사회로 옮겨 그 시대의 사회와 정치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인간 활동이 얼마나 헛된가를 말해 주고 있다.
- (2) 특히 권력의 남용에서 빚어지는 인간사의 모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독함이 주는 비극과 연합이 가져다 주는 기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3) 사실 현실을 들이켜 보면 전도자가 언급한 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헛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발견하게 된다.
- (4)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사물 그리고 사건들이 하나님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부조화로 인하여 빚어지는 결론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 전도자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한탄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전도자는 이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며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한탄하였다.
- (2) 여기서 '학대'란 불공평과 무례한 이기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 외에는 어떤 것도 무시함으로써 이웃의 안녕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참조, 삼상 12:4; 욥 35:9; 호12:8; 암 3:9).

- (3) 이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힘으로 정의의 척도를 삼는 것은 폭력과 같은 뜻을 지닌다.
 (4) 오늘날도 이러한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를 압도해 버리는 권력과 고용인의 최저 생계비조차 착취하려 드는 고용주들의 악행 그리고 가진 자들의 교만스러운 행위 등이다.
 (5) 그런데 이러한 폭력 행위에 대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동참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일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정의로움을 간직하여야 한다.

3. **㉠** 전도자는 학대받는 자에게 있어 학대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라 했는가? (1절)

- ㉠** (1) 전도자는 학대받는 자에게 있어서 그 받는 학대보다 더 안타까운 것으로서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2) 사람에게 있어서 제아무리 압박과 수난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제공하는 위로의 말 한 마디만 있으면 그 상황을 견디어 낼 수도 있다(참조, 고후 1:4-6).
 (3) 그러므로 학대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은 더할 수 없는 슬픔임에 분명하다(참조, 시49:20; 애1:21).
 (4) 그러나 해 아래에서는 위로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 위에 계신 분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해 아래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위로를 날마다 제공하고 계신다(참조, 사25:8; 고후 1:3).
 (5) 뿐만 아니라 그분은 친히 해 아래 내려오셔서 슬픔당한 자를 위로하셨으며(참조, 요 11:19)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고 계신다(참조, 요 14:16, 26, 27).
 (6)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야말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경험한 위로를 가지고 이웃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된다.

4. **㉠** 전도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가? (2,3절)

- ㉠** (1) 전도자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고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나은 자라고 하였다.
 (2) 이처럼 고통받는 생활이 죽음보다 못하다는 사상은 생명을 경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참조, 욥 3:20, 21; 계 14:13).
 (3) 그러나 전도자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참조, 시22:10; 71:6; 사14:2, 24; 46:4) 자체가 죽음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화스러움이 죽음만 못하다는 의미이다.

5. **㉠** 전도자는 사람들이 그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는가? (4-6절)

- ㉠** (1) 전도자는 사람들이 그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이유가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여기서 '교묘한 일'이란 '성공한 일'을 의미하는데 전도자는 이렇게 성공하는 일이나 지나친 욕심으로 소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됨을 지적하였다.
 (3) 그렇지만 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악의를 품고 이웃을 견제한다거나 또한 그 일로 인해 끝내는 이웃에게 막대한 손해를 안겨 준다는 의미에서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다(참조, 약 1:15).
 (4) 그러나 이 같은 견해는 나태한 생활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나태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일하여 그 수고한 땀의 결실을 먹게 만드셨기 때문이다(창 1:28).
 (5) 그러므로 이 말은 결국 사람이 자기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임을 보여 준다(참조, 시 37:16; 131:1-3; 잠 16:8).

6. **㉠** 전도자는 어떤 격언을 인용해 우매자를 설명했는가? (5절)

- ㉠** (1) 전도자는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는 경구적(警句的) 교훈을 통해 우매자의 최후를 설명하였다.
- (2) 이 격언은 ‘좀더 자자, 좀더 즐자 손을 모으고 좀더 늙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잠 6:10, 11; 24:33) 라는 잠언의 말씀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격언으로서 게으른 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
- (3) 한편 ‘손을 거두고’는 누워서 잠자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자기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힘을 소모하고 좋은 기회를 탕진하여 스스로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참조, 민 12:12; 시 27:2; 사 49:26; 미 3:3).
- (4) 이처럼 전도자는 우매자와 게으른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들의 결국(結局)은 공히 자멸임을 강조하였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전도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가운데 부지런할 수 있고 또한 부지런함을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참조, 잠 6:6; 10:5; 30:24, 25).

7. **㉠**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인가? (7, 8절)

- ㉠** (1) 그 말은 동반자나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고독한 자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즉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기주의자를 가리켜 한 말이다.
- (2) 이렇게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의 부를 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또한 그들을 위하여 부귀를 저축하거나 축적할 만한 여유가 없으며 한편으로는 고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곤한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 (3) 또한 이기주의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평안을 안겨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보고도 결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8절).
- (4) 인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귀찮게 보일 뿐이며 끝내는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참조, 잠 27:20).
- (5) 그러므로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은 인생의 말년을 당할 때 문득 자신의 헛된 삶을 돌이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참조, 잠 15:6).

8. **㉠**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9, 10절)

- ㉠** (1) 전도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사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수고함은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협력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참조, 잠 17:17; 27:17).
- (3) 그런데 여기서 둘이란 것은 문자적으로 두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려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
- (4) 창 2:18에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것은 공동체로서 도움을 주고 받는 동료 관계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 (5) 이처럼 우리가 이웃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행위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 눅 10:1; 갈 6:2).

9. **㉠**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11절)

- ㉠** (1) 그 말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도와 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꽃피며 또한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 (2) 팔레스틴 지방의 겨울 밤은 비교적 추우며 여행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낮에 입던 겼옷이 유일한 침구로 사용되었는데 그때에 그 겼옷 밑에 친구와 함께 자는 것은 추

위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방책이었다(참조, 출 22:26, 27; 마 10:10).

(3) 이처럼 인간은 혼자서는 미약하지만 서로 협조할 때에 각기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꾀꾀이 설 수 있다(참조, 살전 5:14; 히 3:13).

10. ㉠ 전도자는 단합된 힘이 어떠한 외세의 침입에도 끄떡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말로서 묘사하였는가? (12절)

- ㉠ (1) 전도자는 ‘한 사람이면 패(敗)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 묘사하였다.
- (2) 사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만약 동료가 합세해 준다면 충분히 그 일을 타개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 (3) 여기서 ‘삼겹 줄’은 그 당시 제일 튼튼한 밧줄이었던 모양이다. 또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수자가 완전수로 통하기 때문에 본질의 내용을 더 심오하게 만든다(참조, 잠 30:15, 18, 21).
- (4)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사단과 날마다의 전투를 치루는 교회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거기서 크나큰 힘이 조성될 것이다.

11. ㉠ ‘소년’이란 어느 정도의 연령층에 있는 자를 말하는가? (13절)

- ㉠ (1) ‘소년’이란 아동기를 넘어선 사람으로 청년의 연령층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 (2) 예를 들면 17세의 요셉을 그 형들이 ‘아이’라 불렀으며(창 37:30) 40세의 르호보암도 그와 같이 자란 친구들에게 ‘소년들’이라고 불렀다(왕상 12:8).
- (3)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대우를 받았으며 또한 지도자의 직책을 얻을 수 있었다(참조, 출 17:5, 6; 레 4:15; 신 27:1; 잠 16:31).
- (4) 더우기 젊은 자가 재산마저 풍족히 가지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환영받기는 매우 힘들었다.
- (5) 그러나 전도자는 이렇게 외적인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자이더라도 ‘지혜’가 있는 젊은 이는 어리석은 왕보다도 나은 존재라고 역설하였다(참조, 창 40:1-41, 44).
- (6)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외적인 구비 조건이 만족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내적으로 참다운 지혜를 소유한 자들일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는 인간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고전 2:27, 28).

12. ㉠ 전도자는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말로써 언급하였는가? (14절)

- ㉠ (1) 전도자는 이에 대해서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는 말로써 표현하였다.
- (2) 즉 이 말은 고난을 받던 가난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질 수 있었던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 (3) 아마도 전도자는 그 옛날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갔던 요셉의 행적(창 40:1-41:44)을 생각하며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미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어 그들을 방백과 함께 세우시는’(시 113:7, 8) 섭리를 나타내기도 하신다.
- (5)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 13:1)고 가르치고 있다.

13. ㉠ 전도자는 세상 권력의 유한성(有限性)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5, 16절)

- ㉠ (1) 전도자는 세상 권력의 유한성에 대해서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16절) 라고 묘사하였다.

- (2) 이처럼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이 집권할 당시에는 명성을 누리겠지만 후세대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힘들여 쌓았던 공적마저도 쉽게 망각될 것이다.
- (3) 만약 이 내용을 계속 요셉에 대한 암시로 본다면 여기에서 그를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을 때(출 1:8) 부수적으로 발생했던 변화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 (4) 그 새 왕은 요셉의 공적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탄압했다(출 1:8-22). 이러한 실례를 토대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 (5) 이와 같이 세상 권력의 유한함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참조, 렘 17:7).

화보자료

대화를 나누는 두 친구. 나무 그늘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두 여자의 모습은 우정에 관한 한 동서 고금(東西古今)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다(삼상 18:1-42). 이들은 선한 일에 힘을 합했는데 본장은 이렇게 선한 친구들의 협력을 권면하고 있다(10-12절, 참조, 잠 17:17).

연구자료

하나님과 하느님의 명칭에 대한 논의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논란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논란은 신·구교 공동 번역 성경 위원회가 구교의 '천주님'과 신교의 '하나님'이란 명칭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일 때 절정에 달했다. 그래서 본고는 이 명칭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서술한 후 성경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그 명칭의 가부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1. '하느님'으로 주장하는 견해

대한 성서 공회 구약 공동 번역 위원이었던 광 노순 씨의 견해에 따르면(기독교사상 1971년 3월호) 하나님의 명칭이 처음 55년 동안은 형태소(形態素)를 '하늘'에 연결해서 읽었으며 다음 15년 동안은 '하늘'이나 '하나'에 연결시켰는데 그 후에는 '하나'에만 연결시켜 '하나님'으로 읽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하늘'(heaven)에 형태소 '님'을 연결해서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통일시켜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견해

'하느님'이란 명칭을 반대하는 이들의 공통된 견해 중의 하나가 '하느님'은 불교나 유교의 문화권에 살았던 우리 민족의 범종교적(汎宗敎的) 용어라는 것이다. 옛날 우리 민족들은 일반적으로 우주 만물의 지배자나 생사 회복의 주재자에 대한 개념을 '하늘'에 두었다고 한다. 그 한 예로 '인명 재천'(人命在天)과 '지성 감천'(至誠感天) 등의 사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불특정 절대자에 대한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늘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도 있으므로(참조, 눅 10:7; 엡 6:12; 계 12:7-9) 유일하신 창조주의(참조, 출 20:3-7; 신 6:4; 렘 10:11; 말 2:10; 마 6:9; 엡 4:6) 칭호를 다신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 관용어로부터 유래된 '하느님'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창조주와 잠신들의 구별이 없이 통용되고 있는 한자어 귀신 '신'(神)자도 유일하신 창조주에 대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다른 나라에서의 하나님 명칭

우리 나라 이외의 나라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① 영어, 독일어, 일본어 성경: 이들의 언어에는 창조주와 잠신을 구별하는 명칭이 따로 없다. 즉 영어에는 '가드'(God), 독일어에는 '고트'(Gott) 그리고 일본어에는 '가미'라는 단어만이 있다. 비록 성경 번역상 귀신들과 구별하기 위해 대문자로 표기한 것만 다를 뿐이다.

② 초기 성경 번역에 사용된 헬라어와 라틴어 : 하나님은 헬라어로 <테오스>, 라틴어로는 <테우스>로 불리어진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그 당시 초월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므로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성경적 접근

구약 성경에 언급된 성호(聖號)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예호와> (출 3:14), <엘> (신 7:21), <엘로힘> (창 1:26), <엘 쇠다이> (출 6:3), <엘리온> (창 14:18), <엘 올람> (창 22:33), <아도나이> (수 3:11). 그런데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엘>이라고 불렀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방 잡신과 같은 분으로 여겼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테오스>도 헬라인들이 자신의 신에 대하여 사용했던 호칭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말을 사용하셨으니(요 3:16) 우리는 이 말이 성경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결과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를 반드시 '하느님' 또는 '하나님'으로 호칭해야 한다는 것은 독단임을 알 수 있다. '신'(神)이란 명칭을 불교나 유교에서 사용한다면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며 기독교에서 사용한다면 유일하신 창조주시며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다. 라이프니쯔가 유일하신 창조주를 '단자'(monad)로 표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이와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이데아'(idea)를 '신'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용어를 통일시켜 사용할 필요는 있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명칭 문제로 교회들끼리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제 5 장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의 선물

단락구분: 1-7 어리석은 자의 헛된 제사 / 8-9 이웃을 확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 10-12 부자보다 노동자에게 평안이 있다 / 13-17 헛된 재물 / 18-20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分福)을 감사히 누리자

1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6 네 입으로 네 욕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7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8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확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9 땅의 이익은 못 사람을 위하여 있으나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

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 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13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14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17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18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19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기뻐하는 것으로 용하시니라

1. ㉠ 본장에서 언급된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 전도자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이 행복과 만족을 획득할 수 없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자가 기쁨과 만족을 소유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 (2) 특히 그는 공중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서원(誓願)에 관하여 모범적인 해답을 주고 있으며 또한 세상의 재물이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금언(金言) 형식을 빌어 강조하고 있다.
- (3) 결국 본장은 인간이 자신이 처한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여기며 만족할 때만이 참다운 행복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2. **㉠** '네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네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은 '행동을 조심하라', '네가 행하고 있는 바와 가고 있는 곳을 기억하라' 는 말이다(참조, 시 119;59,105;잠 1:15;4:26, 27).
- (2) 이 말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결례(출 30:18, 19)나, 경의와 순종의 상징이 되는 것으로 거룩한 집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벗는 습관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참조, 출 3:5;수 5:15).
- (3) 그러므로 이 표현은 단순한 인간의 일상 생활로부터 도덕적, 종교적 생활로 옮겨질 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물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더욱 엄숙하게 모든 일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며 성급하게 착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5)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에 외형적인 화려함 보다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와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참조, 창 4:5;시 34:18;사 1:10-17).

3. **㉠** 전도자는 어떠한 일이 우매자(愚昧者)의 제사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였는가? (1절)

- ㉠** (1) 전도자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다.
- (2)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말로서 사무엘의 고백과 상통한다(삼상 15:22).
- (3) 오늘날 많은 성도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지나친 형식의 틀에 얽매어 놓치지 않아야 할 진리마저도 놓쳐 버리는 외식주의자들이 많이 있다(참조, 고전 4:20;딤후 3:5).
- (4)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경건과 불경건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참조, 잠 21:27).

4. **㉠** 전도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고 하였는가? (2절)

- ㉠** (1) 전도자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야' 하며 또한 '마땅히 말을 적게 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 (2) 이 말은 기도 시간의 길이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아니다. 물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시간적으로 길 수도 있으며(참조, 삼상 1:15) 때에 따라서는 짧을 수도 있다.
- (3)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신중하고 정확한 기도이다. 왜냐하면 경솔한 기도는 결국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마 6:7, 8).
- (4)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매끄러운 언어의 구사라든지 구구 절절한 내용을 담기 보다는 간절한 마음과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참조, 시 34:18).

5. **㉠** 전도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절)

- ㉠** (1) 전도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고 표현하였다.
- (2) 이처럼 전도자는 땅과 무한한 하늘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무한한 거리가 있음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참조, 시 115:3, 16;사 55:8, 9;66:1).
- (3)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차이를 두고 있는 존재이므로 원래는 그분에게 은총을 받거나 그분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는 자들이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간의 현격한 차이를 좁히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교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제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셨던 것이다(참조, 빌 2:6-8;히 4:14-16).

6. **㉠** 서원(誓願)이란 무엇인가? (4, 5절)

- Ⓐ (1)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사물이나 인격체를 봉헌하겠다는 약속이며 (참조, 창 28:20; 삿 11:30) 또한 나실인처럼 일정 기간이나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금기(禁忌)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참조, 민 6:2-27).
- (2) 그런데 이 서원은 모든 사람이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임무는 아니다. 이처럼 서원은 자원에 의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일단 서원을 하게 되면 엄격히 수행되어야만 한다.
- (3) 그리고 이 서원은 신속하게 지켜져야 한다. 사실 변하기 쉬운 인간은 서원을 한 후에라도 쉽게 잊어버리거나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서원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을 수행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게 된다.
- (4) 또한 이 서원은 하나님과 한 개인의 인격적인 약속이므로 인간이 이러한 약속을 어길 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키지 못할 서원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서원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5절).
- (5) 흔히 생각하기를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태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약속 불이행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이다(참조, 행 5:4).

7. Ⓒ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6, 7절)

- Ⓐ (1) 그 말은 ‘네 입으로 너의 전인격(全人格)을 죄로 물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 (2) 즉 이 말은 사사 입다(삿 11:30)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삼상 14:24)처럼 경솔한 서원을 하여 끝내 인격적인 손상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이다.
- (3) 사실 우리는 말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은 모든 교제의 다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 (4)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사용했을 때 특히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성급하게 했을 때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전인격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5)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인간이 혀를 잘 제어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그의 모든 삶이 결정된다고 하였다(참조, 약 1:26; 3:5-8).

8. Ⓒ 전도자는 무엇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는가? (8, 9절)

- Ⓐ (1) 전도자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撲滅)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다.
- (2) 그 이유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3) 여기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란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는 자와 그 주권자들을 지배하는 최상의 존재, 즉 하나님을 가리킨다.
- (4) 따라서 이 부분은 노동자나 빈민들을 학대하는 권력자를 질책하는 말로서 결국 ‘이들도 노동자들로부터 생산되는 물품이나 이익을 취해 살아가는데 왜 그들을 학대하는가’라는 의문을 내포하고 있다.
- (5)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전도자는 인류 역사 이래 끊이지 않았던 억압과 수탈에 대한 근본적인 심판자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의문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고 있다(참조, 롬 12:19).
- (6) 이 땅에서 정당한 방법에 의한 부의 생산과 축적을 원하지 않고 강제력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의 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9. Ⓒ 전도자는 인간의 욕심이 끝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0, 11절)

- Ⓐ (1) 전도자는 인간의 욕심이 끝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라고 묘사하였다(10절).
- (2) 사실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물질에 둔다면 그는 전혀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 욕심을 음부같이 넓히고(합 2:5) 계속적인 부의 축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사 5:8)

또한 끝없는 욕심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잠 30:15).

- (3)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끝내 채워지지 못하고 야고보가 경고한 것처럼 죽음으로 그 최후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참조, 약 1:15).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 땅의 재물에서 헛된 만족을 찾지 말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산 소망' 곧 영혼의 구원에서 참된 만족을 얻어야 한다(참조, 벰전 1:4).

10. ㉠ 전도자는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거나 평안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2절)

- ㉠ (1) 전도자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고 표현하였다.
- (2) 다시 말해 노동자는 단순한 생각과 수고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지만 물질이 풍부한 사람은 그 물질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마음에 편안함이 없을 뿐더러 잠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다.
- (3) 한편 인간에게 편안한 휴식을 갖도록 해주는 노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법칙으로 아무도 그것에 대해 조롱하거나 게을리 할 수 없다(참조, 창 3:19).
- (4) 그러므로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고 먹는 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을 어기는 자이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고 경고의 말을 전하였다.

11. ㉠ 전도자는 무엇이 해 아래서 큰 폐단(弊端)되는 것이라고 하였는가? (13-17절)

- ㉠ (1) 전도자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 (2) 왜냐하면 재물이란 인간에게 안도감과 교만한 마음을 제공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3) 또한 재물은 그 소유주로 하여금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사치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억압하고 가혹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나쁜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 (4)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迷惑)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라고 말하였다.
- (5) 더우기 이와 같은 재물은 가끔 소유주의 생명을 빼앗아 가 버리기도 한다(잠 1:19).

12. ㉠ 전도자에 의해 밝혀진 인간의 본질과 재물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15절)

- ㉠ (1) 전도자는 부자의 폐단을 설명하던 중 인간의 본질과 재물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곧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했다.
- (2) 여기에서 재물과 관련된 전도자의 인간관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赤身)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 돌아가올지라'(욘 1:21)는 욘의 고백에 나타난 사상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서 재물의 허망함을 지적하고 있다.
- (3) 한편 불교에서도 이러한 인생과 재물의 관련성을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4) 그런데 전도자의 이러한 사상은 단지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 뿐 아니라 빈곤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라 할 수 있다.
- (5)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인생과 재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마 19:21)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출 23:11; 레 25:25; 신 15:7; 시 41:1; 잠 19:17; 마 6:20; 눅 12:33).

13. **Q** 전도자는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였는가?(18-20절)

- A** (1) 전도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였다.
- (2)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分福)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참조, 2:24; 3:22).
- (3) 또한 인간은 현재의 축복들이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19절).
- (4)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 그리고 생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선물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마 10:8).
- (5)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는 참된 기쁨을 발견한 자라고 할 수 있으며 생명의 날이 길든지 짧든지 그리고 그 소유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하지 않고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20절).

화보자료

순례자의 평화로운 잠. 예루살렘에 있는 대성당의 계단에서 휴식을 취하는 순례자의 근심 없는 평화로운 모습이다.



비록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편안히 누워 잠잘 수 있는 것은(12절) 하나님의 은혜이다(시 127:2).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신다(참조, 시 3:5; 4:8).

연구자료

하나님의 고유 명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역 성경에서 하나님의 고유 명칭을 맛소라 본문에 따라 '여호와'로 음역한 반면 공동 번역이나 대부분의 히브리어 학자들은 '야훼' 또는 '야훼'로 읽는다. 그렇지만 영어 번역 KJV, RSV, NIV, Living Bible, NEB, TEV 등은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번역할 때처럼 '주'(the Lord)로 번역했다. 이 명칭의 독법(讀法)이 문제시된 것은 ① 맛소라 본문 이전에 쓰여진 어떠한 본문도 모음 표기가 없었다는 점과 ② 바벨론 유수(B.C.586) 이후에는 하나님의 고유 명칭을 부르는 것이 불경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겼던 점이다. 그 후 맛소라 학자들이 기존의 자음으로 된 본문에 모음을 붙이면서 (아도나이)에 표기한 모음을 그대로 고유 명칭에 사용하여 '여호와'로 읽게 되었다. 그러나 그 명칭의 어원을 고려해 볼 때 '여호와'로 읽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출3:14을 볼 때 이 고유 명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 <하야>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동사의 어원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① <하야>가 단순형(칼 형)의 어간일 경우 : 이 동사를 칼 형의 어간으로 보면 '나는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출3:14의 '나는 있는 자'(히, 아셀 에에)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임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행동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주권적 자유에 따라 활동하심을 의미한다(출33:19).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유 명칭은 '그는 존재한다'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야훼'가 적합하다.

② <하야>가 사역형(히필 형)의 어간일 경우 : <하야>란 동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형일 때는 존재적인 의미였지만 사역형일 때는 천지 만물의 동인(動因)임과 동시에 원인(原因)이란 뜻이 된다. 즉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존재하게 한다'란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근거로 출3:14의 원문을 재해석해 보면 '나는 존재하게 될 것을 존재하게 한다'란 표현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심을 잘 나타낸 것이다(참조, 히2:10).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명칭은 그 이름의 뜻에 따라 '야훼' 또는 '야훼'가 적합하다. 그렇지만 앞에서 열거했던 여러 영역본들처럼 '주'(the Lord)로 읽든지 '여호와'로 읽든지 독음상의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 만일 이것이 큰 문제라면 헬라어에서 '예수'로 발음되는 것을 영어로는 '지저스'(Jesus)로, 중국에서는 '야소'(耶穌)로 읽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헛된 재물

단락구분 1-2 재복을 소유했으나 누리지 못하는 자 / 3-6 자녀가 많고 장수(長壽)하여도 만족하지 못한 자 / 7-9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른다 / 10-12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미리 알려졌고 예정되었다

1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2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3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4 낙태된 자는 헛되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면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5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6 저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나

7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8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하고

9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0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11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12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1. ㉠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전장(前章)에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산과 생명 그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으며 그것을 아는 자는 생(生)을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 (2) 그런데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선물)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을 때에 인간의 생이 헛된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 (3) 이처럼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장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즐길 능력이 없다면 그는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불리워 보지 못한 낙태된 자만도 못한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의 부(富)가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2. ㉡ '사람에게 중(重)한 것'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1절)

- ㉡ (1) 여기서 '중한 것'은 원어로 '일반적인 것', '넓음', '공통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 (2) 그러므로 '사람에게 중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전도자는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것, 즉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폐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 (4) 즉 은과 금이 매우 풍부하여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애착을 덜 가질 것이라고 생각되던 전도자의 당대에서조차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던 물욕(物慾)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의 축적을 위해 마음을 쏟게 될 것이다.

3. **㉠ 전도자는 무엇이 악한 병이라고 하였는가? (2절)**

- ㉠** (1)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富饒)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 악한 병이라고 하였다.
- (2) 사실 부와 재산과 명예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그의 섭리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 (3) 그런데 때때로 그것들을 선용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즐기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남겨 두고 죽게 된다.
- (4) 그러므로 제아무리 세속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자라 하여도 그 축복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 할 수 없다.

4. **㉠ '악한 병'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절)**

- ㉠** (1) '악한 병'이란 육체의 질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만 괴롭고 번거로운 일을 말한다. 즉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 (2) 전도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서 많은 재산을 지닌 것은 도리어 그 자신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하였다(눅12:16-21).
- (3) 이처럼 인간의 육체적 소욕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전인격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 (4) 성경은 인간의 육체적 소욕을 절제함으로 해서 생기는 전인격에 대한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참조, 벰전 2:11, 12; 4:1, 2).

5. **㉠ 전도자는 누가 낙태(落胎)된 자보다 못하다고 하였는가? (3절)**

- ㉠** (1) 전도자는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埋葬)되지 못하면' 그는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전도자는 영적인 즐거움과 죽음 후에 평가됨될 생(生)에 대한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고 있다(참조, 왕상 22:29-36; 왕하 10:7).
- (3) 이처럼 이 세상에서 만족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즐거움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참조, 마 26:24).

6. **㉠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3절)**

- ㉠** (1)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며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참조, 사 14:19; 렘 22:19).
- (2) 반면에 시체를 장중(莊重)하게 장사하여 열조의 무덤에 안치한다는 것은 고인이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았음을 인정하는 후손들의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였다(참조, 왕상 13:22; 사 14:18-20).
- (3) 이처럼 자녀가 제아무리 많더라도 그중에서 부모의 시체를 매장할 자가 없으면 그것은 인생의 재난 중에 제일 큰 재난이라 할 수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생전에 모아 두었던 돈이나 권세 그리고 많은 자녀가 영광스럽고 복된 장사를 보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5)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사란 호화스러운 장례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고인을 참으로 기리고 그 삶을 추모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7. **㉠ 전도자가 말한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 자가 돌아가는 곳은 어디인가? (6절)**

- ㉠** (1) 전도자가 말한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 자가 돌아가는 곳은 무덤이다(참조, 3:20).
- (2) 만일 사람이 장수하는 동안 영혼의 평안함을 맛보며 즐거운 가운데 지낼 수 있다면 단

명(短命)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 (3) 그러나 그것이 염려와 괴로움과 불만 가운데 지나간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서 빛을 보지 못한 자보다 못할 것이다.
- (4) 적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덤은 그 양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는데 이와 같은 종말을 알고 현세의 삶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자야말로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다.
- (5) 사실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전개되는 새롭고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참조, 히 9:27).

8. **Q**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가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가? (7절)

- A** (1)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가 모두 '그 입'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 (2)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맘 풀리며 수고하는 모든 행위가 자기 보존과 향락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 (3) 그런데 전도자는 이러한 인간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식욕은 만족함이 없다고 하였다.
 - (4) 여기서 '식욕'이란 히브리어로 영혼을 뜻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 부분을 영혼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만족함이 없다는 뜻이 된다.
 - (5)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참조, 눅 12:16-21; 계 3:20).

9. **Q**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8절)

- A** (1) 그는 올바른 삶의 길을 파악하고 지혜 있게 처신하는 겸손한 자를 가리킨다.
- (2) 그런데 사람 앞에서 겸손하며 처신을 잘하는 자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참조, 고전 1:19-25).
 - (3)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지혜 있는 자나 경솔한 자가 모두 동일하게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삶의 철학이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이는 일이다.

10. **Q**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낫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9절)

- A** (1) 그 말은 지금 보는 것, 즉 제한된 것이거나 현재의 만족(기회)이 한없는 공상(욕구)보다 낫다는 뜻이다.
- (2) 즉 현재 있는 것들을 가장 잘 선용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영혼이 불안하게 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 (3)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적게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늘 만족하는 자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욕구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
 - (4)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것에 국한된 진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욕망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안에서 영혼이 안식하는 것보다 현세적인 것이 더 낫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 (5)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현재 있는 것에만 만족하여 감각대로 사는 것보다 장차 올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참조, 고후 4:17, 18; 히 11:1-3).

11. **Q** 전도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0절)

- A** (1) 전도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칭(稱)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자와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각 개인

의 앞날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의미이다.

- (3)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는 말은 인간은 그 힘과 지혜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뜻이다.
- (4)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겸손과 성실을 겸비하여 생활해야 할 것이다(참조, 사 45:9; 행 15:18; 롬 9:20).

12. **㉠**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 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1절)

- ㉠** (1)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분명한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행하는 어리석은 일을 가리킨다.
- (2) 사실 하나님을 떠나 버린 모든 인간 행위는 그 자체가 허무한 것이며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참조, 롬 1:18-32).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간 삶의 활력과 진정한 행복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곧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참조, 요 15: 1-8).
- (4) 그러므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13. **㉠** 전도자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2절)

- ㉠** (1) 전도자는 인간의 삶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이라고 묘사하였다.
- (2) 사실 인간의 삶은 그림자처럼(욥 14:2)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으로써 결코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없다.
- (3)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14)고 하였다.
- (4)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인간의 삶을 가리켜 풀, 나그네, 행인, 이방인 등 아주 순간적이며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였다(참조, 8:13; 대상 29:15; 시 102:11; 144:4).
- (5) 이렇게 자신의 유한함과 무능력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야말로 새롭고 영원한 삶의 길을 걸게 될 것이다.

본장의 요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2절)

연구자료

낙태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

본장에서는 사람이 육신적인 향락을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3, 4 절). 여기에서 말하는 낙태는 자연스러운 태아의 죽음을 뜻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인공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끊는 잔인한 일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더구나 교회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거나 심지어는 묵인하는 일까지도 있다. 이처럼 혼탁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인공 유산'(abortion)은 때로는 정당화되고 때로는 정죄되기도 하는데 본고(本稿)는 이렇게 가변적이고 상황 윤리적인 '인공 유산'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낙태

국어 사전에는 '낙태'를 '달이 덜 찬 태아가 죽어서 나옴'이라고 풀이하였다. 이를 인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인공 유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공 유산이 행해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자녀 수가 많다든가, 생활이 어렵다든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아들 선호 사상으로 말미암아 태아가 딸로 판명되었을 때, 혹은 혼전 성관계로 말미암은 임신일 때에 인공 유산이 많이 행해진다고 한다. 물론 형법 제 269조와 제 270조에 낙태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사문화(死文化)되었으며 낙태 수술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술은 산아 제한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쾌락을 즐기는 결과 따르는 하나의 작은 희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늘어가는 풍조도 무시할 수 없다.

2. 낙태 수술의 후유증

이러한 임신 중절 수술에는 위험한 후유증이 따르기 쉬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러한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습관성 유산이나 조산(早産)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② 정상적인 임신과는 달리 낙태 후에는 자궁외 임신이 될 확률이 약 4배가 높다. ③ 수술의 뒤처리가 깨끗하고 완전치 못하면 불임을 초래할 수도 있다. ④ 수술 후에 하복통이나 요통, 월경 불순 등의 증상이 따르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많은 후유증이 있지만 보다 위험스러운 것은 수술 중에 산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크고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주는 '임신 중절 수술'을 상기(上記)한 이유들 때문에 행해야만 한다면 이는 너무도 무모하며 자신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3. 성경적 입장

원하던 원하지 않든 임신은 하나님의 축복이다(시 127:3). 인간은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한다(11:5; 시 138:13-16).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복중(腹中)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참조, 렘 1:5) 그 생명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존재로 키워가신다. 원래 인간은 특별히 생명으로 창조되었으며(창 2:7)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책무를 진(창 1:27, 28) 거룩한 존재이다. 따라서 잉태한다는 것은 귀하고 축복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수술이 여러 가지 핑계로 합리화될 수 있다면 이는 너무도 큰 죄악이다. 어떤 사람들은 태내(胎內)의 피터이는 아직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신 중절 수술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민 16:22; 시 27:1) 인간은 그 같은 일을 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라 할지라도 낙태 수술은 '살인' 일 수밖에 없다.

4. 결론

낙태는 근본적으로 생명 경시의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쾌락주의에 편승하여 살인을 합리화시키는 현대적 이기주의(利己主義)의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현상을 직시한다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1978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가정 주부 전체의 58%가 낙태 수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여기에 최근의 성 개방 풍조에 물든 미혼녀들의 경험을 합친다면 그 수는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다. 아뵤든 임신 중절 수술은 태아와 산모를 둘 다 위협하는 위험한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강간을 당했다든가 혹은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은 참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생명의 존엄성을 제시했으므로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낙태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분명하게 밝혀졌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도록 권유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특히 기독교인 의사들은 이 일을 막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 수술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달리 돕는 방법을 폭넓게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성(性)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픔답고 귀중한 성(性)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사회 사업은 '태아 살인'이라는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방인 것이다.

제 7 장 사람의 악에 관한 충고

단락구분 1 고귀한 명예 / 2-7 금욕(禁慾)과 절제 / 8-10 인내가 교만함보다 낫다 / 11-12 지혜의 유익 / 13-14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고칠 수 없다 / 15-18 평범한 삶을 영위하라 / 19-22 세상에 의인은 없다 / 23-24 오묘한 섭리 / 25-29 인간의 완악함

1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쁨보다 낮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3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4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5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6 우매자의 웃음 소리는 술 밑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7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8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10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쩍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11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12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13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였느냐

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5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약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17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18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19 지혜가 지혜자로 성을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20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21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22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23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24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25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6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27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날날이 살피고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8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29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피를 낸 것이니라

1. ㉠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격언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 (1) 본장에서 전도자는 여러 가지 격언을 늘어 놓은 다음 이러한 격언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인간의 부패함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2)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어리석은 향락을 추구함으로 타락하여 더 이상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어지러운 걸음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제시해 주셨다(참조, 사 53:6).
- (4) 만약 인간이 그 길이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이때까지 걸어왔던 허탄한 길에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 결심한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올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이다(참조, 요 14:6, 26).

2. **㉠** ‘아름다운 이름’과 ‘보배로운 기름’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1절)

- ㉠** (1) ‘아름다운 이름’이란 그의 생전에 지혜롭고 인자한 성품을 지니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즉 좋은 평판으로 후손들의 기억에 길이 남을 이름을 말한다.
- (2)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이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값진 향유(참조, 시 45:8; 암 6:6; 눅 7:37)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절에서는 땅의 모든 이익과 감각적인 즐거움 그리고 세상적인 명성을 뜻한다.
- (3) 그런데 전도자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 즉 세상적인 만족과 재물보다 낫다고 역설하였다(참조, 잠 22:1).
- (4)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이름’, 즉 후손들에게 추앙을 받으며 기억이 될 만한 명성을 얻는 것이 최대의 포부로 여겨졌다.
- (5)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이름답게 볼 것이다(참조, 고후 2:15; 6:8-10).

3. **㉠**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는 말은 우리들이 용납할 만한 내용의 말인가? (1절)

- ㉠** (1) 세상에서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즉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기쁨이 있고 임종시에는 애도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출생하는 날이 무조건 좋지 않다는 견해는 피해야 한다.
- (3) 성도들이 이 말을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죽는 자가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5:8; 요일 3:2).
- (4) 이런 의미에서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잠 14:32)고 하였다.
- (5)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시신(屍身)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된다.

4. **㉠** 전도자는 산 자들이 무엇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했는가? (2절)

- ㉠** (1) 전도자는 산 자들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 (2) 여기서 전도자는 환락과 즐거움 그리고 순간적인 흥분보다도 슬픔이 지배하는 곳에서 더 지혜롭고 지속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친다.
- (3) 사실 우리가 초상집에 가 있을 때는 마음에 동정심과 죽음에 대한 심각성과 그것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 (4) 그러나 잔치집에서는 초상집에서처럼 지혜로운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기심과 무정함과 비사교성을 얻을 수 있다(참조, 사 5:11, 12).

5. **㉠** 전도자는 슬픔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3, 4절)

- Ⓐ (1) 전도자는 슬픔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에 좋게 됨이니라’ (3절)고 묘사하였다.
- (2) 이처럼 슬픔은 자기의 인생을 반성적(反省的)으로 숙고하게 만들며 또한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육체적 욕심을 조절하기 때문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 (3) 다시 말해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마음을 청결케 하는 효력이 있으며 인간의 성품에 도덕적인 품격을 형성케 해준다(참조, 창 40:7; 느 2:2).
- (4) 또한 슬픔은 영적인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가운데 영혼을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만든다.
- (5) 반면에 슬픈 감정을 무시하고 기쁨, 즉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이다(참조, 딤후 5:6).

6. ⓐ ‘지혜자의 책망’과 ‘우매자의 노래’는 각각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5, 6절)

- Ⓐ (1) 먼저 ‘지혜자의 책망’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강하게 하는 근엄한 권고를 가리킨다(참조, 잠 13:1; 17:10).
- (2) 그리고 ‘우매자의 노래’란 환락가에서 들리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노래(참조, 암 6:5; 렘 5:4), 또는 악인의 간사한 말을 가리킨다.
- (3) 여기서 전도자는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충족시키기 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통해 우리의 부패를 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였다.
- (4) 계속해서 그는 ‘우매자의 웃음 소리는 술 밑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 같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악인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일시적으로 부풀지만 잠깐 후에 자취를 감춘다는 의미이다.
- (5) 이와 같이 순간적인 위안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삶의 태도에는 허무만이 남게 될 것이다(참조, 시 118:12; 렘 26:22; 마 6:30; 요 18:18).

7. ⓐ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7절)

- Ⓐ (1)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탐학’(貪虐)과 ‘뇌물’(賂物)이다.
- (2) 여기서 탐학, 즉 권력의 남용은 인간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지혜자를 타락시켜서 그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
- (3) 뿐만 아니라 뇌물은 인간의 고상한 마음을 타락시켜 판단을 흐리게 하며 그의 지혜를 빼앗아 우매자보다 나을 것이 없게 만든다(참조, 잠 15:27).
- (4) 이처럼 이 두 가지, 즉 탐학과 뇌물은 인간의 채울 수 없는 욕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끝내는 도덕을 문란케 하고 자기와 이웃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참조, 딤후 6:9, 10; 약 1:15).

8. ⓐ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8절)

- Ⓐ (1) 그 말은 일을 시작만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끝을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 (2) 사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인내와 추진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3)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10:22)라고 하셨다.
- (4) 그러므로 인내의 중요성은 우리의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연결된 것으로 결코 성급하게 모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참조, 롬 2:7; 히 3:6).

9. ⓐ 분노는 주로 누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가? (9절)

A (1) 전도자는 분노가 우매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다.

(2) 이 말은 교만한 자가 자신의 일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오만한 분개심을 꼬집는 것으로서 대부분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마음의 안정과 참지혜를 빼앗아 가버리고 대신 어리석고 무모한 성품으로 고착(固着)되게 한다(참조, 잠 14:33).

(4)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고 용사보다 나으며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진정한 슬기라고 권하였다(참조, 잠 15:18;16:32;19:11).

10. C 어떤 질문이 지혜로운 질문이 아닌가? (10절)

A (1) 전도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쩐이나’ 라고 질문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했다.

(2) 즉 과거를 너무 미화(美化)하고 동경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해 비판하는 비현실적인 삶의 태도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3) 사실 지나치게 과거에만 집착해 있는 사람은 염세적(厭世的)이거나 허무주의(虛無主義)에 빠져서 결코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4) 그리고 이런 자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에 있어지는 일들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5)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과거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능동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다(참조, 빌 3:13, 14).

11. C 지혜(지식)는 인간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11, 12절)

A (1) 전도자는 지혜가 유업같이 아름답게 인간을 만족시키며 또한 생명을 보전시켜 준다고 하였다.

(2) 여기서 말하는 지혜(지식)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지혜를 가리킨다(참조, 잠 1:7).

(3) 이러한 지혜는 먼저 유업같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 유업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귀하다(참조, 잠 8:11).

(4) 그리고 이 지혜는 생명을 보존시켜 준다고 하였다. 사실 이 지혜를 소유하는 자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생명까지 보호함을 받는다(참조, 잠 1:7).

(5)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순한 동물적 생명보다 훨씬 나은 것, 즉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귀한 영적 생명을 가리킨다(참조, 잠 3:18).

(6) 그러므로 인간이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재물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 진정한 삶의 지혜, 즉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 5:21;6:63; 고후 3:6).

12. C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3절)

A (1) 전도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급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끈게 하겠느냐’ 라고 묘사하였다.

(2) 여기서 ‘하나님이 급게 하신 것’이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불확실한 사건과 시련들을 가리킨다.

(3) 이러한 불확실한 사건과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주장이다.

(4) 이런 뜻에서 바울은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롬 9:21)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5) 그러므로 참지혜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운명에 복종함으로써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6) 인간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무능(無能)을 깊이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13. ㉠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두 가지 병행하게 하셨다고 하였는가? (14절)

㉠ (1)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형통(亨通)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困苦)한 날에는 생각'하게 하셨다고 하였다.

(2) 여기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란 말은 좋고 평탄한 날에는 그 평탄함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이다.

(3)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좋고 평탄한 날이 올 때에는 육체를 위하는 일에만 힘쓰기 때문에 교만하며 나태하기 쉽다.

(4)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은 생(生)의 양면(기쁨과 슬픔)이 있음을 생각하여 왜 곤고가 왔으며 거기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라는 말이다(참조, 학 1:5).

(5)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에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균형 있게 허락하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신다.

(6)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악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의 역할을 한다.

14. ㉠ 전도자는 인간사(人間事)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하였는가? (15-18절)

㉠ (1) 전도자는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모순된 현상을 지적하였다.

(2)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살펴볼 때 선한 자들이 언제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으며(참조, 마 5:10, 11; 요 17:14; 딤후 3:12) 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여겨진 것을 발견한다(참조, 고전 15:19).

(3) 이에 반해서 악인들은 세상에서 번창하여 모든 만족을 추구하곤 한다(참조, 시 73:4).

(4) 그러나 전도자는 장수의 날이 항상 축복된 것이 아니고 의인의 의로움이 완고해질 때에 패망을 자초하게 되며 악인에게는 반드시 죽은 뒤에 징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나친 것을 삼가하라고 했다(16, 17절; 시 10:11; 14:1; 롬 9:19; 딤펢전 3:6).

(5)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극단을 피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다. 물론 이것은 순교나 회생을 피하는 타협주의를 권장하는 말이 아니다.

(6) 인간은 자기 의(義)가 지나칠 때에 교만하기 쉽고 지나친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쉽게 멸망하는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참조, 마 5:37).

15. ㉠ 지혜는 그 지혜의 소유자에게 어떠한 능력을 제공하는가? (19절)

㉠ (1) 전도자는 지혜가 그 지혜의 소유자에게 '성읍 가운데 열 유사(有司)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고 하였다.

(2) 여기서 말하는 '열 유사'는 무한히 많은 무리의 지배자 또는 지도자를 뜻한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회에 있어서 '10'이라는 수자는 완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 사실 제아무리 힘과 재산을 많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그 소유자에게 짐이 되며 끝내 멸망의 문이 되고 말 것이다.

(4) 그러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참된 삶의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5)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를 소유하는 첫걸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시111:10; 잠1:7).

16. ㉠ 전도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0절)

- ㉠ (1) 전도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제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참조, 왕상8:46).
- (3) 악 일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도 말하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약3:2)라고 했고 사도 요한도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죄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일1:8)라고 했다.
- (4) 이처럼 자신의 전적인 부패(롬3:10, 23)를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알아 겸손해질 수 있다.
- (5)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지혜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 지혜는 죄인에게 그가 걷고 있는 악한 과정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며 그로 하여금 유일한 안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로 돌이키게 해줄 것이다.

17. ㉠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1, 22절)

- ㉠ (1) 그 말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관한 나쁜 소식에 심각한 주의를 기울이지 말며 그러한 왜곡된 사실에 의하여 자신의 견해와 행동을 제약하지 말라는 뜻이다.
- (2)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서 모욕을 들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자신을 험담하는 소문과 풍문에 의해 상처를 받지 말라는 의미이다(참조, 삼하16:11).
- (3)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기를 갈망하는 것은 거짓된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동은 확실히 자신의 삶을 어지럽게 만든다.
- (4) 사람들은 이웃에게 대한 칭찬보다는 비평하기를 좋아하기 마련이므로 이웃의 험담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4:3).
- (5) 우리는 이러한 이웃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도 발견되는 것이므로 남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참조, 마7:1, 2).

18. ㉠ 전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3, 24절)

- ㉠ (1) 전도자는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通達)하라’고 자신의 한계를 말하였다.
- (2) 비록 전도자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더라도(참조, 왕상3:12, 16-28) 역시 그의 지혜는 인생의 모든 신비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 (3) 즉 그가 실제적인 삶의 법칙을 통달했음지라도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지혜는 결코 잡을 수 없었다. 이처럼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 (4)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하여 인간을 초월해 계신다(참조, 롬11:33).
- (5) 그러므로 인간은 먼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될 것이다.

19. ㉠ 전도자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였는가? (25, 26절)

- ㉠ (1) 전도자는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여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였다.

- (2) 그러나 그가 얻은 결론은 인간의 마음이 '울무와 그물' 같다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마음이 울무처럼 걸리고 그물같이 얽혀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 (3)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여인'이라는 말은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 철학을 가리킨다.
- (4) 즉 성경에서는 허무만을 창조하는 세상 철학은 인간을 실족시키는 음녀로 비유하고 있다(참조, 골 2:8; 약 3:15).
- (5) 여기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헛된 철학의 굴레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26절).
- (6) 그러므로 인생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세속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참조, 시 119:105; 요 8:32; 17:17; 딤후 4:15-17).

20. **㉠** 전도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25절)

- ㉠** (1) 그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말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 (2) 먼저 '내가 돌이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와 내 마음을 돌이켜서'라는 의미로서 현재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 점점 깊은 진리를 탐구해 가는 태도를 가리킨다.
- (3) 다음으로 '궁구' (窮究)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헤스본)은 실제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살피고 궁구하여'라는 귀절은 결국 실제적 지혜와 생활의 지식을 성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 (4) 이러한 사실로 보아 전도자가 지혜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서의 일관된 주제와 같이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귀착(歸着)되고 말았다(26절).
- (5) 왜냐하면 지혜란 단순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전도자의 교훈을 깨달아 결코 자신의 힘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위해 그분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대하1:10; 시 90:12; 잠 2:3; 엡 1:17; 골 1:9; 약 1:5).

21. **㉠** 전도자가 낱낱이 살피 그 이치를 궁구하여 얻은 결론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7, 28절)

- ㉠** (1) 전도자가 낱낱이 살피 그 이치를 궁구하여 얻은 결론은 인생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하나하나 더듬어 찾아 보았지만 아무리 에타게 찾아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 (2) 계속해서 그는 인생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가 거의 없다는 것에 깊은 비애를 느꼈다.
- (3) 그중에서도 그는 남자보다 여자 쪽에서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 (4)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속적이며 음탕한 생활을 상징한다.
- (5) 그러므로 전도자가 여자의 어리석음을 꼬집은 것은 세속적이며 음탕한 자는 결코 참된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 (6)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상반되는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마 6:24).

22. **㉠** 전도자가 인생 문제를 연구하였지만 그 해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29절)

- ㉠** (1)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죄를 낸다'는 사실이다.
- (2) 여기서 전도자는 인간이 참된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

- (3)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올바른 길을 인간에게 제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욕심과 언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을 완전히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나(창 1:26)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 의지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악을 고안해 내는 데에 꾀를 사용하였다(참조, 창 6:5).
- (5)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기를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시 40:12)라고 하였다.

화보자료

금화(金貨). 병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진 아래의 금화는 그리스에서 출토된 것인데 지금은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장에서 돈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듯이(12절) 돈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재물에 너무 집착하는 태도는 바른 신앙 생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참조, 눅 16:13,14; 딤후 3:2).

연구자료

섭리(攝理)에 대하여

본서는 인생의 헛됨과 세상 일의 덧없음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만이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24절;1:2;8:17). 그래서 본고(本稿)는 본서의 기자(記者)가 찬양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의(定義)

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Westminster Confession) :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providence)에 의하여, 그리고 무오(無誤)하신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신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을 유지, 감독하여 그의 지혜와 권능, 정의와 선 및 은혜의 영화로움을 찬양케 하신다.

② 신학자 루이스 벌콕(Louis Berkhof, 1873-1957) :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③ 이와 같은 정의를 살펴볼 때 우리는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포함한 피조 세계 전체를 당신의 무한한 권능과 지식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활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섭리의 범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고 기록하여(마 10:30)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세한 것에까지 미치는가를 설명하였다. 또한 인간들이 제비를 뽑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고 하여(잠 16:33)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통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참조, 출 14:21; 요 2:1-11; 고후 12:12).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시는 활동은 자연 법칙과 함께 초자연적인 역사(役事)가 모두 동원되며 세세한 일에서부터 우주의 운행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것이다.

3. 섭리와 기도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미 계획되었다면 신자는 왜 구태여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기도와 그 응답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예정되어 있다고 답변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

에 성도가 자유스럽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롬 8:26).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구하셨으며(마 26:39)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쳤다(마 6:10).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의무가 있으며(마 6:6; 살전 5:17) 믿음 안에서 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경우 응답을 받게 된다(비교, 고후 12:8, 9).

4. 성경의 예(例)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창 37:18-28에 나오는 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발생되고 전개된 것이었다(창 45:8).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려 할 때 바로의 마음이 재앙 가운데에서도 강퍽해졌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출 7:3; 8:19, 22; 9:12, 14).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이는 가이사 아구스도(Caesar Augustus, B. C. 27 - A. D. 14)가 내린 명령으로 말미암아 미 5:2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다(눅 2:1-7). 마찬가지로 유대의 관원들과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사실도 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결과였다(행 3:18).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역사와 개인의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

5. 섭리와 그리스도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움직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의무는 자신에게 맡겨진 각자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계 4:11).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요 5:17). 그러나 근대로부터 이 섭리의 교리를 무효화시키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실증주의'(實證主義), '합리주의'(合理主義)와 같은 움직임들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상들은 역사의 표면에 드러난 사실들을 이성과 과학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이성과 불완전한 과학으로는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문과 혼란만을 되풀이 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온갖 현상(現象)들을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롬 8:28)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제 8 장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

단락구분 1-8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의 유익 / 9-13 의인을 압박하는 악인의 탈로 / 14-15 하나님께서 희락과 수고를 함께 주신다 / 16-17 하나님의 행사는 깨닫기 어렵다

1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와 해석을 아는 자 누구나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2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3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히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4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라

5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환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6 무른 무슨 일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일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7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8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므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 낼 수도 없느니라

9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10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2 죄인이 백 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녕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13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14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15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쁜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16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도다

1. ㉠ 본장에서 말하는 참다운 지혜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불평하거나 반역하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과 번뇌가 야기된다고 하였다.
- (2)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참다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3) 그가 제시한 참다운 지혜는 권세자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4)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조그마한 지식으로 교만해지기 보다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앞에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 지혜는 그 소유주 되는 인간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는가? (1절)

- ㉠ (1) 전도자는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

이 변하게 한다' 고 그 유익함을 말하였다.

- (2)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품격은 반드시 외모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평안과 지혜를 소유한 자는 틀림없이 그 삶을 통하여 내부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참조, 출 34:30; 마 17:2; 28:3; 고후 3:7).
- (3) 그 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삶을 끝마쳤던 스테반 집사의 얼굴이 아름답게 빛난 것을 들 수 있다(행 6:15).
- (4) 반면에 악인의 얼굴은 항상 굳어 있는데 그 이유는 평화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참조, 잠 21:29).
- (5) 그렇다고 해서 외식으로 얼굴 빛을 밝게 한 자가 참지혜와 평안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얼굴 빛은 그의 행위와 삶 전체를 통하여 판단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마 7:15-21).

3. **㉠** 전도자는 무엇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하였는가? (2절)

- ㉠** (1) 전도자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했다.
- (2)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 한 것이란 그 당시 지배자(왕)에 대한 충성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참조, 출 22:11; 왕상 2:43; 왕하 11:17; 대하 36:13).
- (3) 이러한 것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모두가 피정복 국가에게서 충절의 맹세를 강요했으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케 한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4)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롬 13:1) 고 말하였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권력자에게 순복하는 것은 그 권력자가 완전하고 능력 있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권력을 인정하신 하나님과 그 이름 때문에 순용하는 것이다.

4. **㉠** '왕 앞에서 물러 가기를 급거히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먼저 '왕 앞에서 물러 가기를 급거히 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또는 무자비한 취급을 당했다고 해서 주인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다(참조, 창 4:16; 호 11:2).
- (2)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종된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용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했던 것이다(벧전 2:8).
- (3) 또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말은 왕의 생명과 권력을 빼앗으려는 악한 일을 고집하지 말고 높은 양심의 법으로 그 지배자에게 순복하라는 말이다.
- (4) 이 말은 한 마디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시 1:1)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5) 그런데 전도자가 이러한 권면을 한 이유는 그 권력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그 권력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를 대항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이다(참조, 사 40:15-17; 단 4:35; 롬 9:20-23).
- (6)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도와 그 규례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용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5. **㉠** 왕의 말에 권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왕의 말에 권능이 있는 이유는 그 왕의 직책이 사사로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롬 13:1).
- (2) 그러므로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신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 그 명령에 순복할 것을 말하고 있다.

- (3)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만들어 주신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비록 부도덕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라고 하였다.
- (4) 그러나 우리가 권력을 바라볼 때에 그 권력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그 권력 자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며 끝내 범죄와 파멸로 치닫게 된다.
- (5) 더우기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의 출처가 하나님께로서부터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부터 교만이 싹트며 끝내 자신 뿐 아니라 그 지배권 아래 있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6. ㉠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5, 6절)

- ㉠ (1) 그 말은 왕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의미이다(참조, 잠24:21, 22; 롬13:3).
- (2) 그런데 여기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경우처럼 위에 있는 권력에게 복종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참조, 단1:8-21; 3:1-30; 6:1-24).
- (3) 즉 여기서는 단순히 권력의 출발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언급을 했던 것이다.
- (4) 이렇게 권력에 순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바르게 될 공의로운 심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학대를 참으며 악한 날에도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다(참조, 12:14).
- (5)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권력에 순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반역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인내로써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참조, 롬12:17-21).

7. ㉠ 전도자는 세상 권력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7절)

- ㉠ (1) 전도자는 세상 권력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고 묘사하였다.
- (2) 즉 세상 권력자들은 미래를 볼 줄 모르고 계속 자신의 죄의 양만을 채워 가며 끝내 있을 명백한 자기 운명의 불행에 대한 예비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참조, 잠24:22).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권력자들의 한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학정과 불의한 지배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 (4) 이처럼 자신의 운명조차 결정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마10:28)고 하였다.
- (5) 대신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의 한계를 이미 지정해 놓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1:7).

8. ㉠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8절)

- ㉠ (1) 전도자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세력에는 먼저 생기(生氣)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생기란 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오히려 바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참조, 창8:1).
- (2) 사실 인간은 바람 길을 조절할 수도 또한 그 길의 근원과 종착 지점도 알 수 없다(참조, 잠30:4).
- (3) 두번째로 인간이 제어하기 불가능한 것은 죽는 날이다. 인간은 죽음을 예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물리칠 수도 없다(참조, 삼상26:10; 히9:27).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참조, 요6:35; 11:25; 14:6).
- (4) 세번째로 전쟁을 위한 소집을 모면할 수도 없다. 히브리인의 법률로는 이러한 법칙에 예외(신20:5-8)가 있지만 세상 권력자의 통치 철학에는 예외라고는 찾을 수 없고 단호함이 있을 뿐이다.

(5) 마지막으로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세력에는 도덕적인 죄악과 더불어 오는 형벌이다. 비록 악인들이 하나님은 얼굴을 감추시고 보지 못하신다고 하겠지만 그들에게 예비된 형벌이 그들을 지나쳐 버리지 않을 것이다(참조, 시 1:5; 10:11).

(6)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당신의 의로우신 섭리이기 때문이다(참조, 히 9:27)

9. **㉠**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란 어떠한 때를 가리키는 말인가? (9절)

㉠ (1) 남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자가 끝내 화를 당할 때를 가리킨다.

(2)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자(使者)가 되어 그 국민에게 그들의 선을 이루며 정의를 관리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해야 마땅하다(참조, 롬 13:1, 4).

(3) 그러나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가 되게 하고 국민의 재산을 노략하며 또한 자유를 침해하여 불의한 일을 비호하기도 한다.

(4) 국민의 신앙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통치자들이 이러한 파괴 행위를 자행한다면 그 나라 국민은 불안과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참조, 왕상 21:1-16).

(5) 그런데 이러한 통치자의 국민에 대한 폭행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윤리를 어긴 것으로서 끝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참조, 롬 12:19).

10. **㉠** 전도자는 악인의 모순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0절)

㉠ (1) 전도자는 악인의 모순된 종말에 대해서 ‘악인은 장사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라고 묘사하였다.

(2) 즉 악인들이 죽어 장사된 부자처럼(눅 16:22) 외적으로 볼 때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 장사되는 것이 인과 응보(因果應報)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3) 만일 그들에게 적당한 징벌이 가해진다면 마치 나귀를 매장하듯이 매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사 14:19; 렘 22:19).

(4)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사되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번영과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것이다(참조, 대하 16:14; 26:23; 28:27; 렘 22:18, 19).

(5) 악인에게 이러한 융숭한 대접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던 예루살렘에서 단지 잊혀질 정도로 그 악행이 감춰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도자는 깊은 회의에 빠졌던 것이다.

(6) 그러나 이 모든 현세적인 현상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모순되고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악인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11. **㉠** 전도자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1절)

㉠ (1) 그 이유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사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보다는 더욱 번영된 삶을 누리게 되므로 그들은 훨씬 더 크고 흉악한 범죄를 계획한다.

(3) 이처럼 악인들이 교만하고 방종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만을 보기 때문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4)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참조, 벧후 3:8).

(5)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이는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설명하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준으로 하여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악인들이 가지는 위와 같은 교만과 방종을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다(참조, 고후 4:17, 18).

12. **㉠** 전도자는 현세에서 비록 악인과 의인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어느 쪽이 잘될 것이라고 하였는가? (12, 13절)

㉠ (1)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라고 하였다.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의인은 양심의 평안과 화평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

에 따라 예정되어 있다는 내적인 느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인 고통에도 능히 이겨 나갈 것이다.

- (3) 그러므로 여기서 ‘잘될 것’이라는 말은 의인의 전(全)인격이 잘될 것을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요삼 1:2).
- (4) 그러나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장수한다 하더라도 의인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참조, 시 90:4).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였다.
- (5)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오늘과 같은 모순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13. **㉠** 의인과 악인이 종말에 가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근본 동인(動因)은 무엇인가?(12, 13절)

- ㉠** (1)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이 종말에 가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근본 동인은 그들의 현세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 (2) 이러한 의미에서 잠언 기자(전도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 1:7)이라고 하였다.
- (3)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붙잡는 것이 아니다.

14. **㉠** 악인의 최후는 어떠한가? (13절)

- ㉠** (1) 전도자는 악인의 최후에 대해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라고 말했다.
- (2) 여기에서 ‘장수’는 7:15에 언급된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참조, 본서 7장 **㉠**14)에서 뜻하는 바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장수를 가리킨다(출 20:12; 왕상 3:14; 욥 5:26; 시 91:16; 잠 3:2; 9:11; 20:29; 사 65:22; 숙 8:4). 따라서 악인들이 장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잠 10:27).
- (3) 한편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라는 표현은 인간의 생명이 마치 해가 지면 없어져 버리는 그림자와 같다는 의미(16:12)로서, 해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4) 이처럼 인생을 그림자나 안개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보편적인 표현법이다(참조, 대상 29:15; 시 102:11; 144:4; 약 4:14).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비록 악인들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적(욥 20:5)이고 불확실한(눅 12:20) 헛된 영화(2:1, 2)일 뿐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욥 15:21; 시 73:18-20) 멸망당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참조, 말 4:1; 마 8:12; 눅 16:22-24; 살전 5:3; 계 21:18).

15. **㉠** 전도자는 무엇이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라고 하였는가? (14, 15절)

- ㉠** (1) 전도자는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라고 하였다.
- (2) 사실 이 세상의 일을 살펴보면 의인과 악인이 각각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일도 있다. 이 같은 모순은 성도들의 마음에 자칫 상처를 남기며 또한 실족하게 만들기도 한다.
- (3) 그러나 이 같은 모순 가운데서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을 영위하면서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와 순종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참조, 왕상 4:20).
- (4) 왜냐하면 인간의 삶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서 당신의 선한 의지대로 인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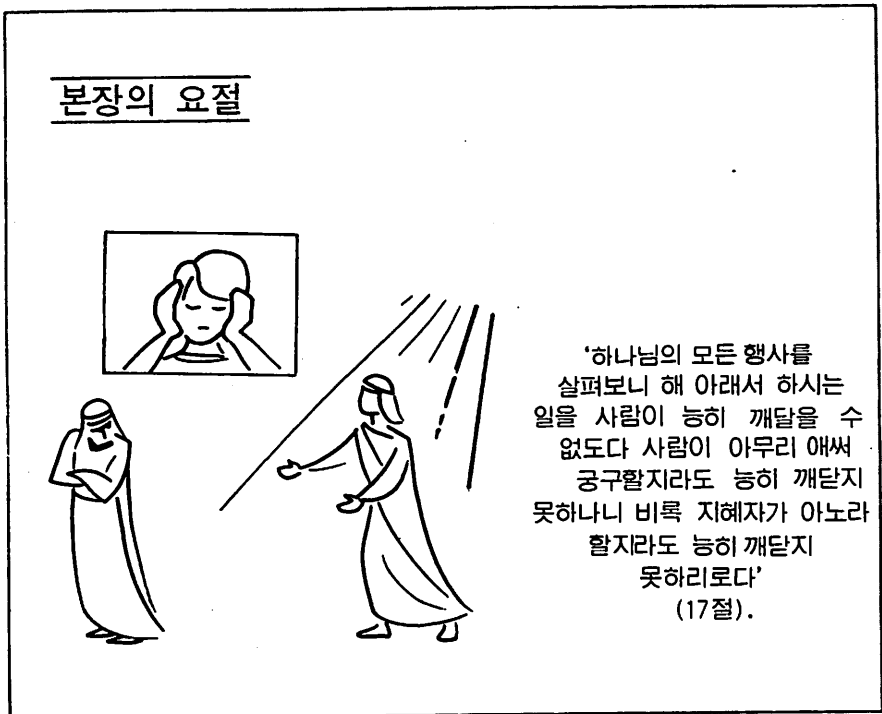
(5) 그러므로 악인의 풍요함을 부러워하여 악인의 소굴로 뛰어드는 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라 할 수 있다(참조, 잠24:19,20).

16. ㉠ 전도자가 회락을 칭찬한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전도자는 '이에 내가 회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온 것이 없느니라' 고 그 이유를 밝혔다.
- (2) 여기에서 회락 곧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탐욕스럽고 방탕한 삶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주어진 은사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라는 의미이다.
- (3) 한편 이러한 회락은 단지 육체적인 기쁨과 편안함을 줄 뿐 아니라 영적인 기쁨까지도 충족시켜 주는 은사로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하다(참조, 갈5:22,23).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회락의 선물을 단지 육체적인 열락만을 위해 탕진하지 말고 참된 영혼의 기쁨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행8:39; 롬5:11; 고후7:4; 벰전1:8).

17. ㉠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16,17절)

- ㉠ (1) 전도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사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모두 알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3)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찾아 알려는 자는 그 앞에 경건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한정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 (4)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11:33)라고 고백하였다.



연구자료

한글 개역 성경에 사용된 각종 부호들

오늘날 각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개신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은 1938년에 발행된 '성경구역'을 대한 성서 공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8)에 따라 표기법을 고친 후 최종적으로 1956년에 펴낸 것이다. 이러한 성경인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각종 부호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히브리 성경에는 없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경 편찬 위원들이 삽입한 것들이다. 이제 그 같은 부호들의 종류 및 용도를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1. 각설표(○)

성경 본문 군데군데에 표기되어 있는 이 부호는 본문의 단락을 구분하는 표시이다. 오늘날의 히브리 성경에도 표시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본문의 단락 구분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과 히브리 성경 간의 단락 구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까닭은 한글 개역 성경이 히브리 성경 외에도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참고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1:1, 2).

2. 쉼표(,)

날말이 계속적으로 나열되었거나 의미상 잠시 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곳에 표기되었다.

이는 다름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고전 1:12).

3. 느낌표(!)

성경에는 단 한 군데 표기되어 있는데 벽찬 감정이나 감탄을 나타낸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몬 1:20).

4. 줄이름표(—, =)

고유 명사(줄이름씨)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외줄(—)은 사람이름에, 겹줄(=)은 족속 및 집단 이름, 지명에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이름인 '예수'에는 줄이름표가 표기되지 않았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5. 음역표(~~~~)

첫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 어원의 의미가 분명치 않거나 그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을 때 그 소리만을 옮기고 그 단어 밑에 음역표를 표기하였다. 둘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아니지만 ‘버터’ 등과 같은 음역에는 이 부호를 표기하였다. 하지만 ‘할렐루야’나 ‘아멘’과 같은 단어에는 음역표가 표기되지 않았다.

물룩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음이여 이것은 너 회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행 7:43).

6. 말없음표(……)

계속하여 말이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운만을 남기고 말을 생략한 부분에 표기되었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목상하고 있는지 혹 잠간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왕상 18:27).

이러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자 된 나 바울은……(엡 3:1).

7. 줄표(—)

줄표는 본래 앞에서 말한 것을 풀이하거나 또는 덧붙여 말할 때, 그리고 글 중간에 다른 말을 삽입할 때, 시작에서부터 끝을 나타낼 때 그리고 문장 중에서 말을 바꿀 때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는 ‘곧’ 또는 ‘즉’을 나타내는 말바꿈표로만 사용되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신 32:29, 30).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달에 지내던 것같이 되었으면—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취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욥 29:2-4).

8. 낫표 꺾쇠(「 」)

본래는 책 이름을 표시하는 부호이나 성경에서는 강조하는(또는 특별한) 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출 28:36).

9. 묶음표(【 】)

(1) 짧은 묶음(【 】): 시편 각 편의 제목 및 그 시의 역사를 밝

히는 부분에 이 부호가 표기되었다.

시 20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시 35편 [다윗의 시]

시 51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2) 격쇠 묶음() : 앞뒤의 문맥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거나 어떤 성경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선 격쇠 묶음으로 묶어 놓았다. 이 중 첫번째 예로는 왕상 10:11, 12을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그를 방문, 예물을 바친 것에 대한 기록인 1-10, 13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두번째 예로 들 수 있는 부분은 요 7:53-8:11인데 '어떤 사본에, 7:53부터 8:11까지 없음'이라는 난하주(欄下註)가 붙어 있다.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눅 24:51-53).

(3) 손톱 묶음() : 이 손톱 묶음표는 대체적으로 주석(gloss)을 달아 놓은 것과 같은 성격의 문장에 표기되었다. 이 용례에 대하여선 다음과 같이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원어의 뜻을 풀이하여 놓은 것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요 1:42).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행 4:36).

②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여 놓은 것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창 23:19).

③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은 것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 7:39).

④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문맥상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 6:13).

제 9 장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다

단락구분 1-3 의인과 악인이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 4-6 죽은 자의 무상함 / 7-10 즐겁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 11-12 매사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 13-18 힘보다 나은 지혜

1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피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음는지 미움을 받음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2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쫓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4 모든 산 자 중에 참예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이니라

5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롭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6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느니라

7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 네 의복을 항상 회개 하며 네 머리에 향기롭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10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11 내가 들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12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흡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13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르러니

14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6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7 중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론의 호령보다 나오니라

18 지혜가 병기보다 나오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케케 하느니라

1. ㉠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전장(前章)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 (2) 세상의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통제 능력을 초월해 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산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 (3) 특히 의인과 악인이 외형적으로는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은 인간으로 하

여금 더 큰 번뇌 속으로 몰아 가서 끝내 참된 삶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

(4)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 섭리의 공의로움을 믿는 성도들은 현실에 나타난 현상들이 모두 모순 투성이라 하더라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결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어진 생(生)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5) 이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끝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맹신(盲信)이나 숙명론(宿命論)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2. Q 전도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절)

A (1) 전도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라고 묘사하였다.

(2) 즉 모든 인간과 그 활동이 당신의 권세 아래 있으며 당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였다(참조, 시 31:15; 잠 21:1).

(3) 그러나 우리는 인간에게 닥치는 사건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환경은 내적인 성품이나 종교적인 심판의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4)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최상으로 여기시는 대로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기 때문이다.

(5)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기준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Q 모든 인간의 삶은 어떻게 끝을 맺는가? (2, 3절)

A (1) 전도자는 인간들의 결국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고 하였다. 즉 모든 사람이 결국은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2) 이처럼 대부분의 인간들은 일생 동안에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지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끼다가 죽음으로 그 끝을 맺는다(참조, 히 9:27).

(3) 여기서 ‘미친 마음’이란 헛된 욕망이나 노력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성과 양심을 거역하는 상태이다.

(4) 모든 인간들은 평생 동안 자신들의 정욕과 고집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는 육체적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이미 죽은 것을 말한다(참조, 엡 2:1).

(5)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그 영혼만은 살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다(참조, 고 후 2:15, 16).

4. Q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 (4-6절)

A (1) 전도자는 산 자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보다 낫다고 하였다.

(2) 즉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재생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천한 자라 하더라도 살아 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3) 그런데 여기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살아 있는 존재는 죽어 있는 시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참조, 12:1).

5. Q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7-10절)

A (1) 전도자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의 자세가 만족과 기쁨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 (2) 즉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며 옷과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아내와 함께 가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 (3) 여기서 기독교의 생활 철학은 금욕주의(禁慾主義)도 쾌락주의도 아님을 알 수 있다.
- (4)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딤후 4:4, 5).
- (5) 그러나 기독교는 무절제와 방종을 허용하는 세속주의(世俗主義)는 결코 아니다. 본문에 진술된 대로 인간은 먼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야 하며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 (6) 또한 참다운 성도는 자신의 생(生) 전부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므로 염려와 불만 없이 기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7) 다시 말해서 성도가 누릴 기쁨은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자족하며 미래의 소망을 갖는 영원한 기쁨인 것이다(5:18-20).

6. **㉠** '너의 하는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7절)

- ㉠** (1) '너의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선물로써 제공된 것으로 먹고 마시는 일을 가리킨다.
 (2) 전도자는 성도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전 10:31).

7. **㉠** 흰 의복과 머리에 바르는 향 기름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8절)

- ㉠** (1) 기후가 더운 근동 지방에서의 흰 의복은 순결과 기쁨의 상징이었다(참조, 대하 5:12; 겔 8:15). 그런데 계시록의 종교적 상징에는 기쁨보다 순결이 더욱 강조된다(참조, 계 3:4, 5, 18; 6:11).
 (2) 그리고 향 기름 역시 기쁨, 특히 은총 입은 자의 기쁨을 상징한다(참조, 시 45:7; 사 61:3).
 (3) 다윗은 하나님의 아낌없는 선물 중에서 이 향유의 즐거움을 중히 여겼는데 그는 노래하기를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시 23:5)라고 하였다.
 (4) 전도자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인간의 삶에 기쁨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관능적(官能的)인 즐거움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절제와 현명이란 한계 안에서 가난한 자를 잊지 않고 가능한 한 생을 즐기라는 것이다(참조, 마 26:6-13).

8. **㉠**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0절)

- ㉠** (1) 그 말은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기의 행할 바를 행하며 자기 영혼과 육체의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라는 의미이다.
 (2) 즉 비록 인생의 많은 부분이 헛된 것이라 해도 인생의 얼마 안 되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그 기회들을 이용하라는 말이다.
 (3) 성도들은 항상 이미 죽은 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더 이상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요 9:4).
 (4) 모든 사람은 이생에서 성취하거나 혹은 전혀 성취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특수한 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활동이든지 이생을 초월해서 계속되는 것은 없다.
 (5) 이 말은 사후(死後) 인간의 존재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일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므로 세상 살 동안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 말이다.

9. **㉠** 전도자는 인간이 자기의 힘이나 노력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1, 12절)

- Ⓐ (1) 그 이유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여기서 '시기'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때를 가리키는 말로서 인간은 이러한 때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절할 수도 없다(참조, 3:1).
 (3) 그리고 '우연'이란 문자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은 재난과 실망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4) 이 둘 모두는 인간의 측면에서는 도저히 간섭할 수도, 또한 조절할 수도 없는 것이다.
 (5) 우리가 이러한 '시기'와 '우연'이 있음을 알 때에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시기가 적당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참조, 잠 16:1-3; 27:1; 약 4:13-16).

10. ⓐ 전도자는 무엇 때문에 지혜를 보고 크게 여겼는가? (13-15절)

- Ⓐ (1) 전도자는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사실 때문에 지혜를 보고 크게 여겼다.
 (2) 여기서 '가난한 지혜자'란 가난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지만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생활하는 자를 가리킨다(잠 1:7).
 (3) 한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발판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천대받던 한 여인의 지혜 때문이었다(수 2:1-21).
 (4) 그러므로 잠언은 말하기를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잠 20:15)고 하였다.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사모하기 보다는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보호해 주는 참다운 지혜를 소유해야 할 것이다.

11. ⓐ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천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15, 16절)

- Ⓐ (1) 전도자는 지혜자가 천대를 받는 이유는 그 지혜자가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즉 전도자는 지혜자가 많은 생명을 구하고 또한 많은 유익을 그들에게 제공하였지만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멸시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3) 이처럼 세상에서는 흔히 재물의 힘이 가난한 자의 지혜를 능가하는 일이 많다.
 (4) 특히 인간을 구원할 참다운 지혜를 소유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참조, 막 6:2, 3).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모르는 이 세상의 처사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오히려 공정한 판단과 대우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할 것이다.

12. ⓐ 전도자는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가? (17절)

- Ⓐ (1) 그는 '중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는 말로 각각을 평가했다.
 (2) 여기에서 '우매자의 어른'에 해당되는 <모쉐르 바케시림>은 '우매한 통치자'라는 뜻이 아니라 '우매자들의 왕'(Living Bible, a king of fools) 또는 '우매자들 중의 통치자'(NIV, a ruler of fools) 곧 '우매자들 중에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3) 따라서 '중용히 들리는...나으니라'는 귀절은 결국 조용하고 신중한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들 중 우두머리가 허풍과 큰 소리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설득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4)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분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이는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어 많은 영혼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것이다(참조, 사 42:2; 마 12:19; 요 8:6; 14:30).

- (5) 한편 전도자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 교훈은 오늘날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이다. 사실 우리들은 말로 인해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약 3:2)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10:12; 12:11; 창 50:21; 대하 10:7; 욥 4:4; 6:25; 잠 15:1; 16:24; 25:11, 15; 31:26; 사 50:4; 렘 52:32).

13. ㉠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케(敗壞)케 하느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8절)

- ㉠ (1) 그 말은 단 한 사람의 죄악이 지혜자의 모든 선을 파괴시켜 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2) 예를 들면 아담의 죄가 전인류를 타락시켰고(고전 15:22) 아간의 탐욕은 죽음을 자초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었으며(수 7:11, 12)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케 했던 것이다(왕상 12:16).
 (3)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도덕적인 선이나 의를 말하기 보다 소유물이나 재산 그리고 공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좋을 것이다.
 (4) 이처럼 의인들의 선(공적, 소유)은 죄인들의 악행이나 사악함으로 격파되어 아무 쓸모 없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적들을 기억하시고 끝내 정당한 보답을 하실 것이다(참조, 마 5:10-12):

확보자료

무덤.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 38km 지점에 위치한 벤세아람에 있는 아래의 무덤은 B.C. 4세기의 것으로서 암벽을 파서 만들었다. 하지만 죽은 자에게 이런 좋은 무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본장에서 전도자는 살아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지낼 것을 역설하였는데(7-10절) 이러한 주장은 삶에 대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연구자료

우리말 관주 성경(貫珠聖經)과 관주

1. 관주 성경

관주 성경이란 성경 본문에 관주 기호가 붙어 있으며 여백란에 그에 해당하는 참조 귀절이 기재되어 있는 성경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관주 성경의 편집 체제를 살펴보면 매 페이지마다 세로 글씨의 성경 본문이 상·하 2단으로 나뉘어 실려 있으며 그 상·하단의 각 윗 부분에 관주 기호 및 참조 성귀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말 관주 성경이 편찬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로서 1911년에 이 익채(李益采) 씨가 관주가 첨부된 '선한문신약전서'(鮮漢文新約全書)를, 그리고 1926년에 정 태용(鄭泰容) 씨가 '선한문구약전서'(鮮漢文舊約全書)를 각각 발행하였다. 이후 이 2권의 책이 합본된 것이 곧 '관주성경전서'(1930)이며 1953년에는 대한 성서 공회가 발행한 한글판 '관주 신구약전서'가 등장하였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 관주 성경의 최종판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따라 개역한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인데 1959년에 개역된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말 관주 성경으로는 국한문 혼용판인 '관주 성경전서 간이 국한문 한글판'이 있는데 이는 1964년에 간행되었다.

2. 관주의 종류 및 용례

① 색인 및 장절 표시: 성경 본문 및 관주란에 기재되어 있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ㆿ 와 시편 2, 34, 59, 90, 123편 등의 제목에 붙어 있는 *+×와 같은 기호는 색인(索引) 표시이다. 그리고 관주란에 나와 있는 한문 수자는 성경의 장절 표시이다. 장과 절의 구분은 ○표로써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九十〇十三'은 '시편 90편 13절'을 의미하며 '막十六〇十七'은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의미한다. 그런데 20과 30이란 수자는 특별히 卅과 卅표로써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겔卅七〇十一'은 '에스겔 37장 11절'이라는 뜻이며 '욥卅八〇廿八'은 '욥 28장 28절'이란 뜻이다. 그리고 '~에서 ~까지'는 ~으로 표시하여 '출卅五〇卅二~卅六'은 '출애굽기 25장 32절에서 36절까지'라는 뜻이 된다.

② 기타 각종 표시: 관주란에 나온 성경 귀절을 살펴보면 쌍점(·) 표시가 있는데 이는 이미 언급된 책이 계속 인용될 때 그 책명을 생략했다는 의미이다. 즉 이는 '상동'(上同)과 같은 말의 역할을 하는 기호이다. 따라서 '눅卅〇四五, 四六·卅二〇十四'는 '누가복음 20장 45, 46절, 누가복음 22장 14절'이란 뜻이며 '민一〇五十·八〇十六·十一〇卅~卅五'는 '민수기 1장 50절, 민수기 8장 16절, 민수기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라는 뜻이다.

또한 어떤 귀절에는 물음표(?)가 표기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참조 귀절이 애매한 경우에 달아 놓은 것이다. 그 예로 요 3:23에 대한 관주로 ‘창卅三〇十八(?)’이 나와 있는데 사실 창 33:18은 요 3:23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관주 중에는 수정을 하여야 할 부분도 있는데 창 3:16의 관주 ㄷ ‘가 七〇十’은 ‘아가서 7장 10절’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서 ‘아七〇十’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마 22:18; 26:55; 요 8:15 등과 같은 귀절의 관주에 ()가 쳐져 있는 것인데 왜 그 같은 ()를 쳐 놓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창 2:9; 3:21; 9:8; 막 14:1 등의 상단에 쳐져 있는 세로줄(|)은 그 줄 앞에 수록되어 있는 관주가 앞 페이지의 아래 부분 관주란에 수록되어야 할 것임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③ 약자(略字) : 관주란을 살펴보면 ‘보, 대하卅〇二’, ‘비, 왕하十一〇十六’, ‘인, 숙十二〇十’ 등과 같은 관주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 ‘보라’는 뜻이며, ‘비’는 ‘비교’, 그리고 ‘인’은 ‘인증’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보’가 붙은 관주는 주석적인 역할을 하는 관주라고 할 수 있다. 이 관주는 어떠한 단어의 출처나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밝혀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상 27:10의 ‘젠’이란 단어에 달려 있는 관주 ‘보, 샷 一〇十六’을 따라 샷 1:16을 찾아 보면 거기에는 ‘젠’이란 단어와 관련하여 모세의 장인이 젠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비’가 붙은 관주는 본문과 대조되는 사상이나 개념이 담긴 귀절, 또는 문자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평행이 되는 귀절을 제시해 준다. 이에 대한 적절한 예로 약 4:3을 들 수 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에 붙어 있는 관주 ‘비, 요일五〇十四’을 따라 그곳을 찾아 보면 거기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는 대조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인’이 붙은 관주는 본문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지를 밝혀 주는 것이다. 즉 마 2:6에 붙어 있는 ‘인, 미五〇二’는 마 2:6의 내용이 미 5:2에서 인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 10 장 지혜와 우매(愚昧)의 비교

단락구분 1-3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논하다 / 4-7 주권자에 대한 처사 / 8-9 이웃을 해치려다가 피해를 입는다 / 10-11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 12-15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 / 16-17 나라의 승패 / 18-19 나태를 경고하다 / 20 왕을 저주하지 말라

1 죽은 파리가 향기롭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2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3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4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5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6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터다니는도다

8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9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10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11 방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

은 무용하니라

12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13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14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나

15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니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16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17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18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19 잔치는 회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20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1. ㉠ 본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전도자의 지혜의 말과 현명한 관조(觀照)를 수록한 잠언이라고 할 만큼 많은 교훈들을 열거하고 있다.
- (2) 본장에 나오는 모든 잠언들의 목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추천하고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다.
- (3) 특히 본장은 열등한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처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반면에 지배자들에게는 피지배자들이 자기들 밑에서 순종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다.
- (4) 사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 것으로 일관되었을 때는 거짓되고 피곤하며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5)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고 매사에 성실하고 거짓 없이 생활하게 된다(참조, 12:14)

(6)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모든 피곤과 불화(不和)를 떨쳐 버리는 것이며 끝내는 하나님 의 백성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2. **㉠ 전도자는 조그마한 어리석은 일이 주는 피해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절)**

- ㉠** (1) 전도자는 조그마한 어리석은 일이 가져다 주는 피해에 대해서 ‘죽은 파리가 향기롭음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고 묘사했다.
- (2) 즉 이 말은 비록 조그마한 악이라 해도 공동체 전체에 큰 해를 끼친다는 의미이다 (참조, 수 7:1-12).
- (3)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5:6) 라고 하였다.
- (4) 특히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지나쳐 버려도 별 표시가 안나는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때에 끝내 전인격이 죄에 함몰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크고 작고를 따지기 전에 먼저 죄란 전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임을 명심하여 비록 하찮은 죄일망정 단호한 태도로 거절하여야 할 것이다.

3. **㉠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愚昧者)를 어떻게 비교하였는가? (2절)**

- ㉠** (1)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는 말로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였다.
- (2) 여기서 오른편은 능력 또는 정의를 의미하며 왼편은 무능력 또는 불의를 의미한다(참조, 마 25:31-46).
- (3) 그러므로 위의 말을 다시 풀이하면 지혜자의 마음과 지식은 그를 바르고 곧은 길로 인도하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그를 그릇 인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즉 지혜자의 마음은 그에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어 안전한 길로 인도하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그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고 최후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든다.
- (5) 그러므로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심이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 16:8) 라고 하였다.
- (6) 결국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말하며 왼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4. **㉠ 전도자는 우매자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3절)**

- ㉠** (1) 전도자는 우매자에 대해서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고 그 특징을 규정하였다.
- (2) 사실 어리석은 자라도 자기가 집에 머물러 있거나 자신의 어리석은 말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면 지혜자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참조, 롬 12:16).
- (3)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잠 17:28) 고 하였다.
- (4)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지혜로운 체하여 남을 혼계하거나 시비를 하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밝히는 것과 같다(참조, 잠 13:16; 18:2).
- (5)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이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닫고 남을 판단하고 징책하기 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의 삶과 언어 생활을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5. **㉠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무슨 뜻인가? (4절)**

- ㉠** (1) 그 말은 폭군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임금에게 대항하지 말고 자

기의 위치(직위)를 지키라는 말이다.

- (2) 여기서 ‘공순’(恭順)이란 부드럽고 넉넉한 인격을 두고 한 말이다.
- (3) 그러므로 본문에서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주권자의 불의한 횡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견디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 (4) 물론 이 말이 불의한 지도자에 대해 묵인하고 맹종하는 비굴함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있을 때 왕, 즉 지도자를 먼저 존경할 것을 가르친 것이다.
- (5) 마땅히 성도는 먼저 지도자를 순종하고 존경한 다음 성경에 근거하여 잘못이 있을 때에만 사랑의 마음으로 지적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적조차 없다면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6. **㉠** 전도자는 사회의 혼란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였는가? (5-7절)

- ㉠** (1) 전도자는 사회의 혼란이 전적으로 주권자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 (2) 즉 주권자가 관리들을 그 재능과 공적에 따라 기용하지 않고 무능하고 경솔한 자에게 높은 지위를 주며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인재를 등용하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졌다는 것이다.
 - (3) 더우기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이적자(利敵者)로 몰아 세우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공의가 바로 설 수도 없다(참조, 잠19:10).
 - (4) 이처럼 한 나라에서 주권자의 실책으로 온 백성이 피해를 입고 탄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권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다.
 - (5) 주권자가 정의로운 정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이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참된 정치가 출발되기 때문이다(참조, 잠1:7).

7. **㉠** 전도자는 이웃을 해하는 자의 결국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8, 9절)

- ㉠** (1) 전도자는 이웃을 해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합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고 묘사하였다.
- (2) 이 말은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결국 그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의미이다.
 - (3) 여기서 ‘합정을 판다’, ‘담을 헐다’, ‘돌을 떠낸다’, ‘나무를 쪼갬다’는 말은 악인들의 포악한 행위를 가리킨다(참조, 시 7:15, 16; 9:15, 16; 잠 26:27; 28:10; 암 5:19).
 - (4) 이처럼 이웃의 소유에 무리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이웃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5)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인격을 망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큰 죄임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출 20:15-17).

8. **㉠**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 11절)

- ㉠** (1) 그 말은 사람이 계획한 일을 용이 주도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 작업을 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2) 더우기 전도자는 사람이 적절한 예방책이나 또는 그것을 다루는 비결을 알지 못하면서 위험한 일을 취급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과 같다고 경고했다(11절).
 - (3)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매사에 준비하게 만들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였다(10절).
 - (4) 이처럼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절한 준비를 하게 만들고 효과적인 작업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9. **㉠** 어리석은 자의 말은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가? (12-15절)

- (A) (1) 우매자의 말은 자기 자신을 해친다고 하였다(12절). 즉 그가 말로 실수를 범하면 범할 수록 그의 온 인격은 멍들게 된다(참조, 잠 10:8, 21; 18:7).
- (2) 두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말은 그 말이 시작되자마자 우매함이 쏟아져 나오고 끝내는 악하고 광적이며 타락한 본성을 노출시키게 된다고 하였다(13절).
- (3) 이런 이유에서 어리석은 자는 침묵하는 편이 더욱 지혜로운 처사일 것이다(참조, 잠 17:28).
- (4) 세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말은 수다스럽지만 그 말이 결코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거나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지식을 전달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였다(14절).
- (5)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 즉 말이 많은 자는 허물도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참조, 딤편 5:13).

10. C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12절)

- (A) (1)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해서 ‘은혜롭다’ 라고 하였다.
- (2) 즉 지혜로운 자는 자기 심중의 은혜를 밝히 나타내며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공급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 (3)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말은 듣는 사람의 호의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4) 인간의 삶에 참된 행복의 길을 제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호의를 가졌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참조, 눅 4:22).
- (5) 이처럼 지혜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제공해 준다.

11. C 전도자는 ‘장래 일’과 ‘신후사’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가? (14절)

- (A) (1) 전도자는 본절에서 ‘장래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반면 ‘신후사’에 대해서는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만을 던지고 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떤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다.
- (2) 여기에서 ‘신후사’(身後事)는 KJV에서 ‘그의 뒤에 닥칠 일’(What shall be after him)로 나와 있는데 이는 아마 사람이 죽고 난 뒤의 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3) 결국 전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은 장래 일 뿐 아니라 신후사 역시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 (4) 한편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인간 뿐 아니라 이방신들까지도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혹 장래사(將來事)를 보이며 후래사(後來事)를 진술하라’(사 41:22, 23)는 그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들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자들이다(고전 12:10).
- (6) 그러나 이러한 예언 역시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 것이지 결코 인간들의 사소한 일이나 일상적인 사건들은 취급하지 않는다.
- (7) 그런데 오늘날 일부 기도원 혹은 부흥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들, 예를 들면 입시, 사업 문제 등에 대해 예언을 하는 풍조가 성행하고 있다.
- (8)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오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짓 예언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언을 받으려고 생

각하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들과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요이 1:10).

- (9)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호기심을 갖거나 요행을 바라기 보다는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 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12. **㉠** 전도자는 복받을 나라와 화를 초래할 나라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6, 17절)

- ㉠** (1) 전도자는 복받을 나라와 저주받을 나라에 대해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宴樂)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補)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화를 받는 나라는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이다. 왜냐하면 왕의 힘이 미약하기에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신하들 또한 안일과 쾌락만을 추구하기에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 (3) 한편 '아침에 연락한다'는 말은 그들의 삶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가리킨다.
- (4) 반면에 복받을 나라는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이다. 여기서 '귀족의 아들'이란 말은 신분이 높은 자가 아니라 고귀한 인격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다.
- (5) 그리고 '기력을 보하려고'란 말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한다는 의미이다.
- (6) 이처럼 한 국가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과 같이 교회와 가정에서도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따라 그 단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13. **㉠** 전도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나라에 있어서 통치자들의 게으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8절)

- ㉠** (1) 전도자는 통치자의 게으른 모습을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고 묘사하였다.
- (2) 이것은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벽이 무너져 내리는 집처럼 한 나라의 통치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여 그 나라가 와해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참조, 암 9:11).
- (3) 이와 같이 공적(公的)인 인물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한 개인이 끼칠 수 있는 나쁜 영향력 이상으로 그 파급 효과가 큼을 깨닫고 매사에 성실해야 할 것이다.
- (4) 특히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역자들은 더욱더 긴장하여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 왜냐하면 사단은 조그마한 불성실도 용납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참조, 벰전 5:8).

14.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 주는 것은 무엇인가? (19절)

- ㉠** (1) 전도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 주는 것은 돈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고 하였다.
- (2)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악한 통치자들은 자기의 욕망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게 된다.
- (3) 즉 굶주린 백성으로부터 수탈한다든지 부당한 과세를 국민에게 징수하여 포탈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이 악한 수단을 동원하여 약탈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 (4) 그러나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영혼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즉 돈은 죄의 사유함이나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한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을 신격화(神格化)하여 돈이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

다는 물질 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의 포로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6)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 라고 하였다.

15. **㉔** 마음으로 왕을 저주한다든지 비밀스러운 곳에서 부자를 저주하는 일을 삼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20절)

- ㉔** (1) 전도자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의 원망과 은밀한 곳에서의 저주를 삼가하도록 권면하였다.
- (2)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비밀이 유지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며 특히 지배자를 경멸하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충고의 말이다(참조, 함 2:11; 눅 19:40).
- (3) 즉 이 말은 지배자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비밀을 지킬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다.
- (4) 더우기 우리는 현존하는 권세자들에게조차도 비밀을 지킬 수 없을 정도라면 온 인류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참조, 고전 14:25).
- (5) 오히려 그분 앞에서만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 놓고 그분의 의로운 통치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참조, 고후 5:10).

화보자료

흰머리 독수리. 독수리 과에 속하는 새이다. 이런 새에 관한 속담이 여러 나라에 있지만 우리 나라에도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다.



'왕을 저주하는 말을 날짐승이 전한다'(20절)는 표현은 지배자를 욕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바르게 정치하도록 권면하고 충고할 책임도 있다(참조, 살전 2:3, 4).

연구자료

우리말 성경 본문에 첨가된 작은 글자들

우리말 성경(한글판 개역 성경)에는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분간하지 못할 작은 글자들이 성경 본문에 첨가되어 있다. 이러한 작은 글자의 기능에 대하여 창세기 1장 맞은편의 범례에 '원문에 가입한 작은 글자는 원문의 뜻을 더 밝힘임'이라고 명시(明示)되었다. 이 같은 기능을 지니는 작은 글자는 에스더서와 예레미야에 가사를 제외한 모든 신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글자의 형태는 주어, 조사, 목적어, 부사 심지어는 구(句)나 절(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예, 창 21:33; 44:25; 출 35:12; 레 10:10; 대상 12:2; 사 10:22; 44:8). 따라서 본고(本稿)는 이 같은 작은 글자의 형태 및 그 기능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작은 글자의 형태

성경에 나온 작은 글자를 본고에서는 편의상 그 글자 아래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① 주어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좇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창 9:19).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계 16:3).

② 서술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창 1:16).

③ 목적어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잠 7:12).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롬 10:1).

④ 관형어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십 일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오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렘 1:3).

⑤ 부사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고후 7:8).

⑥ 조사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 일을 뉘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민 23:10).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롬 9:27).

⑦ 구(句)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 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겔 17:19).

⑧ 절(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히 7:20).

2. 작은 글자의 기능

작은 글자는 성경 원문에는 없지만 독자(讀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한글판 성경에 첨가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작은 글자는 다분히 주석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히브리어나 헬라어와 같은 원어 문장을 우리말로 옮긴 결과 생긴 의미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준다. 예를 들어 막2:14의 경우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로 번역된 부분의 헬라어 원문은 <레원 톤 투 알파이우 카테메논 에피 토 텔로니온>이다. 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알패오의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이 되는데 여기서 ‘알패오의 레위’란 말의 의미는 애매 모호하다. 그래서 역자는 헬라식 어법을 따라 <투 알파이우>라는 말에 이미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단어를 첨가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다. 둘째, 원어의 어법상 관계적으로 생략된 단어를 보충해 준다. 그 예로 롬 9:23을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셨을찌라도’로 끝나는 부분에 ‘무슨 말 하리요’라는 말이 첨가되었다. 이처럼 원문에 없는 서술어가 우리말에 첨가될 수 있는 까닭은 헬라어의 어법상 이미 20절에 나타난 ‘말하겠느뇨’(헬, 크리노)라는 단어가 23절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본문의 의미를 보다 강하게 나타내 준다. 즉 롬 9:27의 경우 원문에는 ‘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뜻을 보다 강조하기 위하여 역자는 ‘남은 자’라는 말에 ‘만’을 덧붙여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번역하였다. 넷째, 본문에 있어서 말하는 주체(主體)가 누구 인지를 명확하게 해준다. 그러한 예로는 렘 21:8이 있는데 그 서두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첨가되어서 8,9절의 말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밝혀 준다.

제 11 장 적극적인 삶을 살라

단락구분 1-6 구제와 권면에 힘써라 / 7-8 네 죽음을 기억하라 / 9-10 청년에게 권고하다

- 1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 2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라도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나니라
- 3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 4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 5 바람의 길이 어찌함과 아이 뱀 자의 태에서 뱀이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 6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

- 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나니라
- 7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 8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라도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 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 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10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1. ㉠ 본장은 주로 무엇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가?

- ㉠ (1) 본장에서 전도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행위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제 행위는 결국 세상 재물이 가져다 주는 허무함을 방지하는 최선책이 되게 한다.
- (2)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제 행위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용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미덕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 (3) 또한 전도자는 인생에 있어서 죽음과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할 것과 늦기 전에 이 준비를 시작하며 심지어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젊은 시절부터 이 일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 (4) 그러나 이러한 준비는 삶을 염세적(厭世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사모하는 희망 찬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5) 이처럼 인간이 현세의 삶을 즐겁게 살고 내세에 대한 희망을 소유하려면 캄캄한 날(죽음)이 올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쁘게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이다.

2. ㉠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항구 도시의 곡식 무역 풍습에서 유래된 비유적인 표현으로 거의 모험에 가까운 사업을 벌이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시 107:23; 잠 31:14).
- (2) 그러나 여기서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로서 물에다 버리듯이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는 의미이다(참조, 마 5:44-46; 눅 6:32-35).
- (3) 여기서 '던지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라'이다.
- (4) 그러므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과 마음을 바치는 자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보다 귀한 것이 이웃이며 하나님이기 때문이

다(참조, 욥22:24, 25).

- (5) 그리고 ‘물 위에’ 버리라고 한 것은 이웃을 도와 줄 때 자신의 구제 행위에 대해 기약하지 말고 도와 주라는 표현이다.

3. **㉠ 전도자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진 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온다고 하였는가? (1절)**

- ㉠** (1) 전도자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진 자에게는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 (2) 즉 그 구제 행위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 (3)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결코 우리들의 구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근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 (4) 이러한 보상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들은 구제 행위 그 자체로 기쁨과 감사를 맛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보상해 주시면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그 보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4. **㉠ 우리들이 많은 사람에게 구제와 자비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3절)**

- ㉠** (1) 전도자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와 자비를 행하라고 하였다(2절).
- (2) 사실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경우에 인간이 재앙을 회피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3절).
- (3) 인간이 영원히 살 것처럼 또한 평안하게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참조, 히 9:27).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소유와 힘을 투자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겔 7:19).

5. **㉠ 전도자는 사소한 장애를 생각하다가 큰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풍자적으로 비유하였는가? (4절)**

- ㉠** (1) 전도자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播種) 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고 하였다.
- (2) 즉 대수롭지 않은 날씨 변화 때문에 씨앗의 파종을 이루는 자는 그 일을 올바르게 끝내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 (3) 이처럼 미래의 불확실성과 예상되는 장애물 때문에 해야 할 일을 과감히 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 (4) 특히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상되는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게으르게 하거나 모든 활동들을 정지해 버린다면 그것은 곧 마귀의 음모에 매이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참조, 눅 9:59-62).
- (5) 이와 같이 결과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노력을 무기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6) 고 하였다.

6. **㉠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攝理)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가? (5절)**

- ㉠** (1) 전도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2) 그래서 그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요 3:8)과 아이 밴 자의 태(胎)에서 몸의 뼈대가 어떻게 자라는지(욥 7:15; 잠 15:30; 16:24)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였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그 범위와 세부적인 내용 모두가 신비에 속해 있다.
- (4) 이러한 신비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해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 (5)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로 수용한 다음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일일 것이다.

7. **㉠**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는 말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그 말은 어려서부터 경건과 순결을 연습하고 또 그러한 행동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라는 의미이다.
- (2) 또한 이 말 속에는 아침과 같이 상쾌한 분위기에서 뿐 아니라 저녁처럼 탈진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참조, 갈 6:8-10).
- (3) 이와 같이 우리가 기력이 있을 때나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경건과 선행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곧 이르기 때문이다(참조, 요 9:4).
- (4) 더우기 우리가 성실히 일생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참조, 창 1:28; 3:16-19).
8. **㉠** '빛'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7, 8절)
- ㉡** (1) '빛'은 이 세상에서의 삶(생명)을 의미한다(참조, 요 11:9).
- (2) 이 삶이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고귀하고 마땅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이 길든 짧든 간에 그의 사는 날 동안 삶을 즐기도록 하셨다.
- (4) 그런데 인간이 생명이 있는 동안 진정으로 즐겁게 살려고 한다면 항상 죽음을 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쁘게 누리야 할 것이다.
- (5)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고전 15:32)는 신조를 가진 감각주의자들처럼 절망적이고 무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9. **㉠** 전도자가 청년에게 말한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는 것은 진심으로 권하는 말인가? (9절)
- ㉡** (1) 전도자의 말은 단지 역설적인 표현일 뿐이다. 즉 진심으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다.
- (2) 이러한 표현은 청년들에게 일방적인 명령으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선택의 여지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욱 설득력이 있다.
- (3) 흔히 청년의 때를 가리켜 정열이 물끓듯하는 때라고 한다. 즉 청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모두를 행하고 싶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를 굴리고 싶어한다(참조, 사 57:17).
- (4) 이런 청년의 때를 경험했던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분의 공의로 우신 심판을 경고함으로 그들의 더 이상의 방종과 무절제를 삼가하도록 권면하였다.
- (5)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 중에도 현세의 삶만을 생각하고 쾌락만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
- (6)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현세의 삶에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참조, 히 9:27).
10. **㉠** 전도자는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가? (10절)
- ㉡** (1) 전도자는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고 권면하였다.
- (2) 여기서 '근심'이란 불만과 원한 그리고 의기 소침을 뜻하는데 전도자는 이러한 감정들을 신중한 행동을 통하여 청년의 마음에서부터 제거하여야 영혼의 건강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빌 4:11).
- (3) 그리고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말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몸을 무절제하게 방임한대거나 그 정욕에 탐닉하게 만들어 나약한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 (4) 사실 청년의 정욕에서 출발한 죄악은 청년으로 하여금 영적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지

경에 이르게 만들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기력을 쇠하게 만들어 끝내 전인격을 몰락하게 만든다.

- (5)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권고하기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고후 7:1) 라고 하였다.
- (6) 그러므로 수증기처럼 곧 사라져 버리는 청년의 때, 즉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청년의 때에 그 주어진 기회를 바로 사용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화보자료

식물(食物)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 아래 그림은 식물(食物)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을 그린 삽화로서 13세기 「설명이 붙은 성경」에 나오는 그림이다. 현재는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1절) 구제하라는 의미인데 특히 이는 물에 던지듯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행을 베풀라는 의미이다(잠조, 마 6:2-4).

제 12장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단락구분 1-8 젊었을 때에 조물주(造物主)를 기억하라 / 9-10 전도자가 기록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 11-12 지혜자의 말씀이 지닌 효용성 / 13-14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1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3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땀들질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4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땀들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5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6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9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목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11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12 내 아들이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 전도자는 전장(前章)에서 언급하였던 청년들을 위한 충고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전장과 본장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까지 하였다.
- (2) 그리고 그는 본서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상, 즉 세상의 것들이 모두 헛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자기의 사상이 결코 세속의 철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발언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 (3) 마지막으로 그는 장차 올 심판을 고려하여 인간의 근본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라고 하였다.
- (4) 이처럼 인간의 모든 축복과 부유함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불균형 속에서도 우선적이고 불변할 의무는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다.
- (5) 만일 인간에게 있어서 위와 같은 근본 도리를 우선 해결하지 않고서 세상을 논(論)하고 인생을 논한다면 허무와 좌절이라는 결론만을 얻게 될 것이다.

2. ㉠ 전도자는 본장의 초두에서 청년들에게 어떠한 충고를 주고 있는가? (1절)

- ㉠ (1)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困苦)한 날이 이르기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고 하였다.
- (2) 여기서 '곤고한 날' 이란 노년(老年)에 있어서의 비탄과 불편함을 가리키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란 무능력과 허약함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없게 될 때를 뜻

한다.

- (3) 그러므로 이 두 문장은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전도자는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곧 젊은 시절에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하였다(참조, 삼하 19:35).
- (4) 이처럼 전도자는 어린 시절의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청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적합하다(참조, 신 31:13; 시 34:11; 잠 3:1, 2).
- (5) 어릴 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쌓은 자들은 잠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분을 묵상하겠지만(시 1:2)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으로 가득 메워질 뿐이다(시 10:4).

3. **㉠ 전도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절)**

- ㉠** (1) 전도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창조자’ 라고 묘사하였다.
- (2) 이 ‘창조자’ 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한 것으로서 창 1:1 등에서 사용된 동사 <바라>, 즉 창조하다의 분사형이다. 이는 <엘로힘>과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서 위엄과 우월함을 나타내는 존재로 표현되었다(참조, 욥 35:10; 사 54:5).
- (3) 전도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청년들이 자신의 전인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자신의 모든 소유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4) 다시 말해서 청년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생각하고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만 온 힘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다(참조, 고후 5:15).
- (5)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이시며 소유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 (6)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창조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전 삶을 그분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으며 창조자로서의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4. **㉠ 전도자는 어떠한 자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였는가? (2절)**

- ㉠** (1) 전도자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였다.
- (2) 이 표현은 악조건의 기후를 가리키는 말로서 노년기(老年期)에 증가하는 불편을 비유하고 있다.
- (3) 즉 사람이 늙어지면 모든 것이 귀찮고 걱정과 근심이 늘어가게 된다(참조, 욥 30:26; 33:28, 30; 겔 32:7, 8; 암 8:9).
- (4) 더우기 사람이 늙으면 죽음을 바로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절망적일 수가 있다.
- (5)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의 황혼기가 도달하기 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 주시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였다.
- (6)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젊음이 무한대한 것처럼 생각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안개와 같이 유한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헛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참조, 약 4:14).

5. **㉠ 전도자는 인간의 육체가 쇠약해짐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3-5절)**

- ㉠** (1) ‘먼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사람이 늙어 팔과 손에 힘이 빠져서 떠는 것을 말한다.
- (2) 다음으로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하였다. 이것은 다리가 허약해져서 몸을 지탱할 힘이 없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 (3)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늙어서 치아(齒牙)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4) 또한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시력이 약해져서 사물을 옳게 식별하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참조, 신34:7).
- (5)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이 늙어 청각(聽覺)이 쇠퇴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 (6)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노인이 되면 젊었을 때처럼 이가 튼튼 하지 못하여 왕성하게 음식을 먹던 소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다.
- (7) 또한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라는 말은 늙으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깊고 평안한 잠을 들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 (8)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라고 하였다. 이 말은 노인이 되면 발성 기관이 약해져서 힘차게 말하거나 노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 (9) ‘높은 곳에서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기력이 쇠한 늙은이가 먼 길을 여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을 가리킨다.
- (10) 또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고 하였다. 이것은 백발이 된 허약하고 둔한 노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 (11)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사람이 늙어서 자신의 몸을 혼자 가누기에 어렵게 될 것을 가리킨다.
- (12) ‘원욕(願欲)이 그치리니’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식욕이 떨어지고 성적으로 무기력해진다는 말이다.
- (13)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吊問者)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고 하였다. 이 말은 노인이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장례식에 고용될 자들이 자기들의 직업을 팔며 돌아다닌다는 말이다(참조, 삼하3:31; 렘9:17;34:5; 마9:23).

6. ㉠ 전도자는 인간의 죽음을 어떠한 비유로 나타내었는가? (6절)

- ㉡ (1) 그는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라는 비유를 통해 인간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 여기에서 각 비유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분해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비유	의미
줄	육체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생명력
은과금	사람의 생명과 본질의 귀중함
그릇과 항아리	육체의 각 기관 및 육체 그 자체
줄이 풀림, 그릇이 깨어짐	영혼과 육체의 분리
항아리의 깨어짐, 바위의 깨어짐	활력 있는 동작을 발산시키고 계속 유지시키며 사람을 살게 해주는 육체의 기관들이 멸망함
바위	계속 회전하는 유기적 생명 곧 심장의 박동과 호흡 기관의 움직임을 상징함

(3)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인간의 죽음이란 결국 생전에 공존하던 영혼과 육체가서

로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참조, 7절).

7. ㉠ 전도자는 인간의 구조를 몇 부분으로 보았는가? (7, 8절)

- ㉠ (1) 전도자는 인간의 구조를 모두 두 부분으로 보았다. 즉 인간은 흙(몸)과 신(영)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였다(참조, 마 10:28; 고후 5:8).
- (2) 본문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라는 말은 인간의 생명이 끝날 때에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근본적으로 창조의 재료였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다(참조, 창 2:7; 3:19; 욥 34: 15; 시 104:29).
- (3) 그리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인간의 영혼은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다. 여기서 영혼이 신으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무아흐>의 누앙스 때문이다.
- (4) 전도자는 이렇게 인간의 죽음 후에 오는 영육(靈肉)의 분리를 예로 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의 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 (5)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으며 또한 분리시켜서 죽음에 이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오묘하신 계획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 (6) 이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영원한 내세(來世)를 약속하는 것이며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참된 지혜이다(참조, 잠 1:7).

8. ㉠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떠한가? (8절)

- ㉠ (1)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생의 결론으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였다.
- (2) 즉 그는 하나님을 떠나 버린 속명적인 존재의 허무함과 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본성과 끝내는 죽음으로 마쳐야 하는 생의 바퀴가 아무 의미도 없이 굴러간다고 하였다.
- (3) 이런 면에서 그는 더욱더 ‘창조자를 기억하라’ (1절)고 권면하였던 것이다.
- (4)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제아무리 화려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풍요롭다 하여도 결국은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9. ㉠ 전도자가 백성들에게 남긴 교육적 업적은 무엇인가? (9, 10절)

- ㉠ (1) 전도자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즉 그는 에스라가 백성에게 말씀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느 8:8) 모범적인 교사 역할을 하였다고 말했다.
- (2) 이처럼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참조, 딤후 3:2; 4:11; 6:2; 딤후 2:2).
- (3) 그런데 그가 가르친 것은 모두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그 진리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말씀을 일컫는다(참조, 사 119:43; 엡 1:13; 골 1:5; 딤후 2:15; 약 1:18).
- (4) 또한 그는 깊은 묵상과 심오한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것들만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순수한 열정으로 가르쳤던 것이다(참조, 고후 4:2).
- (5)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말’만을 구사하였다고 하였다. 즉 그는 듣는 자들의 부패한 본성과 비뚤어진 성품을 만족시키려(딤후 4:3) 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눅 4:22)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 (6)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된 자들은 영감에 찬 말씀만을 전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말씀만이 모든 인간의 영혼을 기쁘게 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참조, 고전 10:33).

10. ㉠ 전도자는 지혜자와 스승의 말씀이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11절)

- ㉠ (1) 전도자는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찌르는 채찍 같다’는 것은 지혜자의 말씀이 비록 그 말을 듣는 당시는 아프고 분노가 치밀지만 끝내는 그 영혼과 삶에 참지혜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 (3) 그리고 ‘잘 박힌 못 같다’는 것은 잘 박힌 못에 물건들을 걸어 두는 것처럼 지혜자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된 자들은 자신의 말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또한 청중들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인의 길을 걷게 만든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기교적인 언어의 구사나 화려한 강단보다는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11. ㉠ 전도자는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어떠한 경계(警戒)를 받으라고 하였는가? (12절)

- ㉠ (1) 전도자는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라는 경계를 받으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여러 책’이란 세상의 지식만을 논한 책을 가리킨다.
- (3) 그러한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서 아무리 많이 출판된다 하더라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삶과 죽음)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독자로 하여금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다.
- (4) 사실 인간의 지식은 끝없이 새로워지고 있고 그것을 연구하는 자도 또한 끝없이 연구에 몰두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절대시하여 심혈을 기울인다면 실망만이 남을 뿐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고’ (딤후 6:20)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착념하여 그 속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려야 할 것이다.
- (6)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된 지혜의 소유자들이 모든 학문의 첨단에서 그 분야에서도 세속 학문이 얻는 피곤한 결론을 추구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12. ㉠ 전도자는 사람의 본분(本分)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3절)

- ㉠ (1)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전도자는 자신의 최후의 결론으로 인생의 모든 축복과 부요함 가운데에서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불균형 속에서도 우선적이고 불변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3)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은 ‘그의 명령을 지켜라’는 말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은 곧 그에게 복종하는 태도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 (4) 이 하나의 의무만이 땅에서 공로가 되며 행복이 되며 영원까지 남을 수 있는 흔적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의미를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피조물된 사람의 본분을 지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이 본서의 결론이다.

13. ㉠ 전도자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13절)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4절)

- ㉠ (1) 전도자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현세적인 심판이라기 보다 인간의 죽음 후에 당할 심판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앞으로 있을 영원한 세계(천국과 지옥)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특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우리의 은밀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참조, 롬2:16; 고전4:5; 딤후5:24, 25).
- (4) 사실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을 판단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별거벗은 것처럼 모두 드러날 것이다(참조, 겔34:17; 마25:32-46).
- (5) 그러나 이러한 심판이 성도에게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행위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앞날의 무한한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보상)을 바라보고 현실의 고통을 참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화보자료

음악하는 여자들. 소고와 손뼉을 치며 피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팔레스틴의 젊은 여성들 모습이다.



본장에서 '음악하는 여자들'은 인간의 발성 기관을 비유한다(4절). 그러나 성경에는 미리암(출 15:21), 사사 드보라(삿5장),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찬양하는 여인들(삼상 18:6, 7)과 같은 음악하는 여자들에 관한 기록도 많이 있다.

연구자료

외경(外經)에 대하여

1. 외경

① 정의: '외경' (Apocrypha)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크루파>에서 유래된 단어로 '감추어진 것들'을 의미한다. 외경은 B. C. 250년경부터 기독교 시대 초엽까지의 기간 동안 알렉산드리아나 팔레스틴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쓴 문헌으로 히브리 정경에 들지 못한 것들을 가리킨다. 또한 이러한 구약 외경 이외에 신약 시대에 쓰여진 외경들도 있다.

② 분류:

구분	목 록	개 요
역사서	마 카 비 상	안티오쿠스 치세하에서의 유대인들의 독립 운동사
	마 카 비 하	유대인들의 독립 운동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 강조
	에 스 드 라 상	다리오 왕의 세 근위병들간의 이야기
구약의 서	에스더첨가서	정경 에스더서에 하나님을 언급한 부분이 첨가되어 있음
	수 산 나	수산나라는 여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는 이야기
	세 젊은이의 노래	플무불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
	벨 과 뱀	다니엘이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뱀'을 격퇴한 이야기
경의 서	유 딯	유딯이란 과부가 바벨론의 장군을 암살하고 유다를 구함
	토 비 트	토비트와 그의 아들 토비아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예 언 서	바룩 (에레미야 서신) 므낏세의 기도 유다 왕 므낏세의 회개 기도
묵시서	에 스 드 라 하	에스드라에게 임한 일곱 가지의 계시
교훈서	집 회 서	지혜의 덕을 찬양하는 윤리적인 교훈집
	솔로몬의지혜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좇지 않도록 권고
	야고보의 원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결성 변증

신	서	복음	영지주의(Gnosticism)적 경향이 나타나 있음
		도마복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비교적 무난한 문헌
약	도	베드로복음	가현설(Docetism)적 사상이 나타나 있음
		니고데모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의 이름이 나옴
경	전	외경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음
		사도 바울 및 테글라(Thecla)라는 여신도의 행적	사도 바울 및 테글라(Thecla)라는 여신도의 행적
의	행	요한행전	사도 요한의 이적 및 밧모섬으로의 귀양에 대한 기록
		안드레행전	막시밀라(Maximilla)와 관련된 안드레의 행적
서	신	도마행전	도마의 인도에서의 선교 활동 및 순교에 대한 기록
		베드로행전	시몬마구스(Simon Magus)와 관련된 베드로의 행적
신	서	사도서신	사도들의 기독교 신앙 옹호서
		고린도 3서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 있음
의	행	바울과 세네카의 서신	14개의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4세기 경의 위조 문서
		그리스도와 압갈의 서신	압갈(Abgar)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받은 서신
계	시	베드로의 묵시	종말론에 대한 언급
		바울의 묵시	악인과 선인의 최후 묘사

③ 외경에 대한 여러 견해 : 개신 교회는 외경이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의 사상과 생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 그것을 연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외경은 예수 그리스도나 초대 교회가 인정한 구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필로(Philo Judeus, B. C.20?—?)나 요세푸스(Josephus, A. D.37?—?) 같은 유명한 유대 학자들도 외경을 알고는 있었으나 결코 그것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정경에 정통한 교부들도 정경과 외경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사르디스의 멜리토(Melito), 예루살렘의 씨릴(Cyril), 제롬(Jerome, 345?—420) 등은 정경과 외경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1546년 트레نت(Trent) 회의에서 구약 외경 중 11권의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외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그 책에서 연대 착오, 지리적 부정확성, 비역사성, 비윤리성, 교리적 모순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